

2023년도 한국스포츠사회학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일 시 : 2023년 11월 24일(금)

장 소 :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상허홀

주최·주관 :  한국스포츠사회학회

후 원 :  스포츠안전재단
KOREA SPORTS SAFETY FOUNDATION



한국스포츠사회학회

2023년도 한국스포츠사회학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일시 : 2023년 11월 24일(금)

장소 :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상허홀

주최·주관 :  한국스포츠사회학회

후원 :  스포츠안전재단
KOREA SPORTS SAFETY FOUNDATION



한국스포츠사회학회

행사 일정표

구분	순서	시간	내용		사회자	장소	
1	정기 이사회	11:30~13:00	정기이사회 및 오찬			남상우 총무이사	상허홀
2	접수	13:00~13:30	등록 및 자료집(기념품) 수령				
3	개회	13:30~13:40	개회			서희진 회장	
3	정기 학술 대회 (심포지엄)	13:40~15:30	발제 1 (13:50~14:20)	스포츠 양극화 개념의 종합적 이해 (한승백 교수, 한림대학교)		김종호 학술이사	
			발제 2 (14:20~14:50)	스포츠 소비·소득의 양극화 (전원재 교수, 한국교원대학교)			
			발제 3 (14:50~15:20)	스포츠 젠더 양극화 (이정래 교수, 경북대학교)			
			종합토론 (15:20~15:40)				
4	Break time	15:30~15:40	Break time				
5	세션별 자유주제 발표	15:40~17:10 (15분 발표/ 5분 질의응답)	session 1 교양 강의동 303호(사회자: 최윤소 교수)		session 2 교양 강의동 302호(사회자: 이원미 교수)		
			① 한국세미프로선수를 위한 취업지원에 관한 연구: 일본여자축구선수의 듀얼 커리어 사례를 통한 고찰 (신은진, 호쿠세이가쿠엔대학) ② 주간활동센터 종사자가 경험하는 성인 발달장애인 신체활동 지도의 어려움 (예운, 김경오, 경북대학교) ③ 태권도 도장에서 태권도 학원로의 변화 (최영훈, 장익영, 한국체육대학교) ④ 태권도 코치 사회화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김혜은, 권순용, 서울대학교) ⑤ 상식으로 포장된 '비인기 종목' 개념의 사회학적 비판 (남상우, 박채운, 김대희 충남대학교)		① 스포츠클럽 등록 활성화는 어떻게 가능 한가: 검도 동호회의 스포츠클럽 등록 경험으로 이해한 제도적 문제와 개선안 (남상우, 김준희, 김대희, 충남대학교) ② VAR 시스템의 명과 암: K-League 심판 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서동진, 서희진, 김기운, 건국대학교) ③ 스포츠 ODA와 공동창출: 이해관계자 인식을 중심으로 (송시현, 권순용, 서울대학교) ④ 체육교습업 입법과정에서의 문제와 시행 과정에서의 의도되지 않은 결과: 리틀야구를 중심으로 (권순일, 장익영, 한국체육대학교)		
6	Break time	17:10~17:20	Break time				
7	정기총회	17:20~18:10	정기총회 및 시상식			남상우 총무이사	상허홀
8	폐회	18:10~18:20	폐회 및 기념 촬영			김종호 학술이사	상허홀

개 회 사



존경하는 한국스포츠사회학회 임원 및 회원 여러분!

오늘 2023년도 한국스포츠사회학회 정기학술대회를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곳 충주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참석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회의 정기학술대회는 명실공히 학회 회원들의 학술적 성과와 스포츠발전을 위해 학회가 고민해야 할 주제를 토론하고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앞서 개최된 동·하계워크숍, 올림픽기념 국제스포츠과학학술대회, 전국체전기념학술대회 등 여러 학술행사 중 회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일부 있었지만, 늘 그렇듯 회원 여러분의 학문적 열정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기학술대회의 주제는 ‘양극화 시대, 스포츠를 읽다’입니다. 격차사회로 불리는 사회적 양극화의 개념이 등장한 이래 사회적 불평등이 강화되는 양극화현상은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분야도 예외일 수 없다는 측면에서 스포츠 양극화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스포츠에서의 양극화현상 극복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이번 심포지엄을 준비하였습니다. 심포지엄 발제를 흔쾌히 수락해주신 한승백 교수님, 전원재 교수님, 이정래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포지엄과 함께 2개의 세션에서 다양한 자유주제 발표가 진행됩니다. 모쪼록 신선하고 창의적인 발표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많은 토론과 의견이 교환되길 기대합니다. 한자리에서 여러 연구자의 학문적 성과를 들을 수 있는 것이 학회 참가의 가장 큰 매력이라 생각하며, 발표자들의 노력이 더욱 빛날 수 있길 바랍니다.

끝으로 학술대회에 참석해주신 학회 임원 및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한국스포츠사회학회 회장 서 희 진

환영사

2023년도 한국스포츠사회학회 정기학술대회를 이곳 국토의 중심 충주,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학회 발표와 참가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오신 학회 임원과 회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로 창립 33년째를 맞는 한국스포츠사회학회는 정기학술대회를 비롯하여 동·하계 워크숍, 국제학술대회 등 여러 행사를 통해 회원 간의 활발한 학술교류와 친목을 다지고 있으며, 스포츠와 관련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성찰과 대안을 제시하는 체육 분야의 대표적인 학회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인 '양극화 시대, 스포츠를 읽다'도 최근에 더욱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를 스포츠 측면에서 조명하고 대안을 찾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의 학술적 역량 강화와 발전을 기원합니다.

겨울의 초입,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을 방문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환영의 인사를 전하며, 여러분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건국대학교 Glocal 총장 문 상 호



심포지엄

발제 1. 스포츠 양극화 개념의 종합적 이해 한승백 (한림대학교 교수)	11
발제 2. 스포츠 소비와 소득 양극화 전원재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31
발제 3. 스포츠 젠더 양극화 이정래 (경북대학교 교수)	51

세션별 자유주제 발표

[Session #1]

한국세미프로선수를 위한 취업지원에 관한 연구: 일본여자축구선수의 듀얼커리어 사례를 통한 고찰 신은진 (호쿠세이가쿠엔대학)	69
주간활동센터 종사자가 경험하는 성인발달장애인 신체활동 지도의 어려움 예운, 김경오 (경북대학교)	71
태권도 도장에서 태권도 학원으로서의 변화 최영훈, 장익영 (한국체육대학교)	73
태권도 코치 사회화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김혜은, 권순용 (서울대학교)	75
상식으로 포장된 '비인기 종목' 개념의 사회학적 비판 남상우, 박채운, 김대희 (충남대학교)	77



세션별 자유주제 발표

[Session #2]

스포츠클럽 등록 활성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검토 동호회의 스포츠클럽 등록 경험으로 이해한 제도적 문제와 개선안 남상우, 김준희, 김대희 (충남대학교)	81
VAR 시스템의 명과 암: K-League 심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서동진, 서희진, 김기운 (건국대학교)	83
스포츠 ODA와 공동창출: 이해관계자 인식을 중심으로 송시현, 권순용 (서울대학교)	85
체육교습업 입법과정에서의 문제와 시행 과정에서의 의도되지 않은 결과: 리틀야구를 중심으로 권순일, 장익영 (한국체육대학교)	87

발제 1.
스포츠 양극화 개념의 종합적 이해



발제 1.

스포츠 양극화 개념의 종합적 이해

한승백_한림대학교 교수

1. 들어가는 말

‘양극화(polarization)’는 IMF 이후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동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익숙해진 용어이다. IMF 금융위기의 결과 소득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심화되었고, 중산층이 몰락하였으며, 소득분위의 양극단에 소수의 ‘상위층’과 다수의 ‘하위층’이란 두 집단의 군집 현상이 뚜렷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양극화 현상이 소득분배와 같은 경제적 현상에 국한되어 일어나는 건 아니다. ‘이대남(20대 남성) vs 이대녀(20대 여성)’ 논쟁으로 대변되는 젠더의 양극화라든지, 그 어떤 접점도 없이 끊임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진보, 보수의 극단적 대결 정치의 양상과 같은 양극화 현상들은 그들의 생각, 정서, 이념이 양극화의 주요 토대라 할 것이다.

이처럼 양극화란 계층적 불평등뿐 아니라 이념적 갈등까지 두루 쓰이는 광범위한 분야에 다차원적이고 중층적인 용어로서 사용된다. 더군다나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양극화란 분열적 언어가 다양한 현상에 활용되는데, 이는 한국 사회가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가 크고, 이념적 갈등이 첨예함을 방증하는 결과라 할 것이다.

미래에 희망을 품은 서민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더 나은 삶을 선택할 권리가 박탈된다면 그 노력은 허무할 것이다. 각기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 사사건건 충돌한다면 대립과 분열로 점철되어 민주주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양극화 현상은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지 사회 발전에 커다란 장애이다. 양극화가 만연한 사회는 분열적이고, 협력, 화합, 통합이 없는 암울한 사회이다.

본 글에서는 양극화의 개념을 스포츠에 적용하여 스포츠 양극화의 개념을 살펴볼 것이다. 스포츠는 정치, 경제, 사회, 미디어, 젠더, 계층 등 다양한 문제를 투영하고, 스포츠사회학은 스포츠를 통해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학문이다. 그 때문에 스포츠사회학이 바라보는 양극화의 개념은 너무나 다양한 양상을 나타낼 수밖에 없고, 그것의



종합적 이해가 애당초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이에 스포츠의 양극화란 현상의 범주에 어떤 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지, 또 그 개념은 무엇인지 대략적으로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2. 스포츠 양극화의 개념과 두 가지 범주

‘양극화(polarization)’는 라틴어 ‘polus’에서 유래했고, ‘pole(극)’이 그 어원이다. 어미 ization은 대부분 추상적 개념의 ‘~화’로 해석하는 데(e.g. globalization, modernization, industrialization 등등), 그 때문에 사전적 의미에서 Polarization은 ‘분극화’, ‘극단화’란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사회과학에서는 대부분 polarization이란 용어를 빌어 ‘양극화’라 해석하는데, 사전적 의미를 충실하게 적용하면 “인구나 집단이 직선의 도식에서 각각의 대척점(지구 위의 한 지점에 대하여, 지구 반대쪽에 있는 지점)인 양 끝에 군집하여 분리되는 현상”이라 하겠다. 그러나 사회과학의 양극화 정의는 단순히 인구의 극단적 분리 현상에 그치지 않는다. 여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 및 갈등 현상에 대한 의미 부여가 이루어진다.*

스포츠와 결부된 양극화 현상도 마찬가지이다. 스포츠사회학이 바라보는 스포츠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영역과 상호작용하고, 계층, 계급, 젠더, 미디어, 교육 등의 분야와도 깊은 관련성을 맺는다. 스포츠는 그 자체로 사회의 축소판이며, 사회 세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작은 세상(small world)이다. 따라서 스포츠 양극화 현상은 복잡적이고 다차원적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스포츠와 관련된 경제적 양극화는 선수들의 소득 격차나 경기장 시설과 자원의 종목별, 지역별 불균등한 분배에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문화적 및 사회적 양극화는 특정 스포츠의 참여에 대한 참여 또는 관중의 접근성이나 인기와 관련을 맺을 수 있고, 국가나 지역, 계층, 젠더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드러낼 것이다. 이처럼 스포츠란 하나의 개념으로부터 파생하는 다양한 양극화 현상은 여러 사회 분야와 중첩되고, 연결되기 때문에, 모든 다양성에 주목한다면 마침내 총체적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에 본 글에서는 이념형(ideal type)**을 활용하여 스포츠 양극화 현상의 개념에 접근

* 학문계에서 polarization이란 용어가 활용된 건 광학 및 물리학 분야인 듯하다. 17세기 후반 이미 아이작 뉴턴이 빛의 본성에 관해 탐구하면서 빛이나 전파 등의 파동이 특정 방향으로 진동하거나 배열되는 현상으로 ‘polarization’란 용어로 호명하였다. 그러나 과학 분야의 polarization을 한 국어로 해석하면 그 의미로 볼 때 양극화보다는 ‘편광’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 이념형은 막스 베버가 ‘경제와 사회’에서 언급한 개념으로 “현실 세계에서 발견되는 개념이나 현상을 단순화하고 추상화하여 그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이론적 도구”이다(Weber, 1978).



하려고 하는데, 크게 ‘계층적 양극화(class polarization)’와 ‘이념적 양극화(ideological polarization)’가 그 두 가지이다. 즉, 이 두 가지 양극화 현상을 상위 범주로 놓고, 상위 범주와 특성을 같이 하는 스포츠 관련 다양한 양극화 현상을 그 아래 위치하게 함으로써 스포츠 분야의 양극화의 지형에 접근할 것이다. 전자는 “물질적 자원의 불공정한 분배를 전제한 양극화 현상”이고, 후자는 “이념적 갈등을 전제로 한 양극화 현상”이다. 물론 이는 설명을 위해 현실 세계를 단순화한 이념형일 뿐이다. 왜냐하면 젠더 양극화의 예만 들어도, 계층적 양극화와 이념적 양극화가 중첩된다. 고용 및 노동 조건 즉,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낮은 임금을 받거나, 직장 승진 기회에서 불평등을 경험하는 경우 계층적 양극화와 밀접한 관련성을 맺겠지만, 젠더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 및 젠더 평등에 대한 논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이념적 양극화에도 관련성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계층적 양극화와 이념적 양극화란 구분은 개념 정리를 위한 이념형일 뿐이고, 스포츠 양극화 현상은 중층적이고 다차원적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전제해야 할 것이다.

3. 스포츠와 계층적 양극화

1) 계층적 양극화의 조작적 정의

본 글에서는 “물질적 자원의 불공정한 분배”를 전제한 양극화”를 계층적 양극화라고 조작적 정의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원식(2013)은 “일반적으로 양극화(polarization)란 한 사회 내부에서 중간층이 소멸하고 소수의 상층과 다수의 하층이 분리되고 분열되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했다. 신동균(2006; 2007)은 “몇몇 국가들이 중산층의 쇠퇴(disappearing middle class) 현상을 목격하면서 이분화되어 가는 사회 현상을 포착하기 위해 양극화라는 새로운 개념 및 지수를 개발했다”고 했다. 강영혜, 김미숙, 이영, 남기곤, 김동춘(2005) 그리고 남인숙(2011)도 “양극화란 사회 내의 여러 집단이 상하 양극으로 급격히 이동하는 현상이고, 하층에서 중간층으로, 중간층에서 상층으로의 사회적 이동이 현저히 제약되어 계층구조가 고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위에 제시한 양극화 정의들은 “중산층 또는 중간계층의 붕괴·소멸”에 초점을 맞춘다. 특정 사회의 중간계층이 붕괴하면서, 나머지 인구 집단이 양극단으로 분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의 양쪽 극단은 남극과 북극처럼 가치중립적이지 않고, 상층과 하층이란 위계가 부여된다. 중간계층이 붕괴되고 소수의 상위계층과 다수의 하위계층으로 인구 집단이 극단적으로 분리되는 현상은 위계의 의미와 불평등 현상을 내포한다. 물론 양극



화와 불평등화는 다른 개념이다. 양극화는 단순히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두 집단의 양극단으로의 분리 현상을 강조하고, 이에 따른 갈등을 설명을 내포하기 때문에 불평등과 등치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신동균, 2006)

이와 같은 중간계층의 붕괴와 소수의 상위와 다수의 하위로의 계층 분리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비유가 ‘20대 80의 사회’이다. 1995년 세계 각국의 영향력 있는 정치가, 경제학자, 경영자 500여 명이 모인 한 토론회에서 참가자 중 한 명이었던 Brzezinski는 “노동 가능한 인구 중 20%만 있어도 세계 경제는 유지 가능하므로,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위해 노동비용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성록, 2005.05.02.). 이후 ‘20대 80의 사회’는 Rifkin(1996)의 ‘노동의 종말’이나 Martin & Schumann(1997)의 ‘세계화의 덫’에도 인용되면서 널리 알려졌다. Martin & Schumann(1997)은 여기에 티티테이먼트(tittytainment)란 개념을 더 했는데, 엄마의 젖을 뜻하는 영어 속어 티티(titty)와 오락을 뜻하는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의 합성 조어이다. ‘20대 80의 사회’는 나머지 80의 사람들에게는 적당한 먹을거리(titty)와 자극적인 즐길 거리(entertainment), 이른바 티티테이먼트를 제공함으로써 실업자나 저임금 노동자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을 안정시킨다는 것이다(김성호, 2003.02.19.). 티티테이먼트는 물질적 자원의 불공정한 분배를 전제한 양극화 현상 즉, 계층적 양극화 시대의 사회적 통제 기제를 일컫는 말인 셈이다.

이처럼 계층적 양극화는 중간계층의 붕괴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가 핵심 키워드이다. 계층적 양극화의 사회란 중산층도 없고, 저항할 세력도 없는 승자독식의 사회, 튼튼한 중산층이 시장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토대라는 믿음이 붕괴된 사회, 물질적 자원의 불공평한 분배로 인한 소득분배의 양극화, 고용 및 노동의 양극화 그리고 그 개념을 확장시켜 교육의 양극화, 지역적 양극화가 팽배한 사회라는 의미까지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첫째, 고용 및 노동의 양극화이다. 지난 20년간 더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조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공부 좀 한다는 인재들은 다양한 사회의 각 분야가 아닌,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한정적 일자리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소수의 특정 분야만 고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의과대학 집중 현상이 바로 대표적인 증거라 할 것이다. 이 같은 고용 및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사회 계층화를 촉진하고 전체 사회의 갈등 및 불안정의 요소가 되는 건 자명하다.

둘째, 지역사회 양극화도 계층적 양극화의 한 양상으로 환원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 소멸***’이란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원이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더 나은 직업

*** ‘소멸위험지역’은 매년 급속히 늘어나 2022년 3월 기준,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13개로 절반(49.6%)에 이른다(박진도, 2023.11.12.).



기회와 생활환경을 누리기 위해 많은 인구가 수도권에 직장이나 거주지를 마련하고자 한다.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의 인구는 줄어들고, 세수는 감소하며, 정치, 경제, 문화 전반이 위축되어 텅 비어 버린 것과 같은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머지않은 미래에 대부분의 지방이 소멸할 것이란 재빛 전망이 나온다. 지난 2022년 한국스포츠사회학회 정기학술대회 조영태 교수가 언급했듯이 30년 안에 대부분의 지방 도시가 공동화 현상에 직면하고, 서울 및 수도권 그리고 수도권과 기능적으로 연결된 몇몇 도시만 살아남을 것이란 극단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셋째, 교육의 양극화도 계층적 양극화의 한 단면이다. “방앗간 집 자식이 귀 틀어막고 앉아 열심히 공부해 명문대에 입학했다”는 소위 개천에서 용이 난 신화는 과거, ‘세대 내 계층이동(intragenerational mobility)’의 가능성을 상징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떨까. 경제적, 지역적 여건에 따라 사교육에 대한 접근성 차이가 확연하고, 그것이 다시 상위권 대학의 입학으로 연결되어, 교육의 양극화에 따른 학력 자본의 대물림 현상이 노골화되었고 교육은 곧 계급 재생산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지방대학 소멸론도 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인구의 절반이 집중된 수도권 대학에 전국의 수험생들이 몰리면서,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대학들이 입학할 학생이 없어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고, 힘들게 유치한 신입생들은 다시 반수, 휴학, 편입을 통해 수도권 대학으로 진입을 노린다. 이렇게 교육의 양극화는 경제적, 지역적 양극화와 맞물려, 한국의 대표적인 불평등 사례로 자리잡았다.

이처럼 계층적 양극화는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친다. 양극화는 구조적인 문제인데, 여기에서 ‘구조적’이란 짧은 시간 특정 분야에 일어나는 불평등의 현상이 아니라, 그 불평등을 극복하기 어려운 물질적, 제도적, 관습적 한계가 뚜렷하고, 이 같은 사회 분열적 상태가 장기간에 걸친 고착된 현상이라 할 것이다.

2) 스포츠에서의 계층적 양극화

이 절에서는 다양한 스포츠에서의 계층적 양극화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 평등의 개념을 활용한다. 즉, 스포츠 불평등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비례적 평등 및 기회의 평등 그리고 실질적 평등의 개념을 통해 스포츠에서의 계층적 양극화 현상에 접근해 본다.

첫째, 비례적 평등 (Proportional Equality)이다.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 기여도, 성과에 따라 자원을 차등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널리 실천되고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어대훈, 2023). 예를 들면, 올림픽이



나 월드컵 같은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에게 그 성취에 비례해 더 많은 상금과 금메달과 같은 영예를 부여함으로써 비례적 평등을 실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비례적 평등과 관련한 스포츠에서의 양극화 현상의 예를 살펴보자. 1973년 윌블던 테니스대회 남자 단식 챔피언의 상금은 12,000파운드였다. 반면 여자 단식 우승자의 경우 상금은 1,500파운드로 남자부가 여자부에 비해 8배 더 많았다. 이에 빌리진 킹은 윌블던 남녀 단식 우승자에게 동일한 상금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이 사건은 WTA(Women's Tennis Association) 창립의 계기가 된다(Ware, 2011). 당시 여자부의 상업적 인기가 남자부와 별 차이가 없었음에도 1/8의 상금 지급은, 비례적 평등의 가치가 훼손된 현상이고, 이 같은 불평등의 구조적 고착화는 남녀 스포츠의 상금 분배(소득 구조)의 양극화 현상이라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US, 호주, 프랑스, 미국의 4대 메이저 대회 모두 남녀부에 같은 금액의 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수량적 평등), “남자부는 5세트나 경기를 하고, 여자부는 3세트를 하며, 인기는 남자부가 여자부보다 더 많은데 똑같이 상금을 지급하는 건 역차별이고, 상업적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것(비례적 평등)이 오히려 더 공정한 것 아닌가”란 주장이 있어 상금 분배 방식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우리가 “남자부 여자부의 스포츠 경기 상금과 관련하여 비례적 평등과 수량적 평등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란 질문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상금 격차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실천과 이 문제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기회의 평등(Equality of Opportunity)이다. 각 개인은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자유롭게 계발할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지며, 모든 사회적 제도에 대한 접근을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열어 놓는다는 개념이다. 기회의 평등은 과정상의 기회만 평등하면 그로 인한 결과의 불평등은 무시하기 때문에 가장 소극적인 성격의 평등 개념이라고 간주된다(어대훈, 2023)

1928년, 버지니아 울프가 쓴 자기만의 방(A Room of One's Own)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당신이 대학 행정관일지라도 자물쇠를 채우려거든 마음대로 하시지. 그렇지만 내 마음의 자유에는 대문도, 자물쇠도, 빗장도 절대로 채울 수 없어(4장).” 앞서 1장에서 주인공이 옥스퍼드 대학 도서관에 진입하려고 하지만, 관리인이 “여성은 대학 소속 연구원과 동행하거나 소개장이 없으면 도서관 출입이 불가능하다”말을 듣는 장면에 대한 답일 것이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참가하려는 캠브리지 대학을 배경으로 했던, 영화 불의 전차(Chariot of Fire)에서도 캠퍼스에 단 한 명의 여학생도 목격할 수 없었다는 걸 기억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성별에 따른 교육자원의 불평등한 분배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이고,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왔었기에 성별에 따른 계층적 양극화 현상이라 할 것이다. 성별에



따른 교육적 불평등은 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자유롭게 계발하는 데 장벽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은 이후의 직업 선택, 사회적 지위, 그리고 권력 구조에도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1972년 제정된 미국의 연방법 Title IX은 기회의 평등을 실현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이는 교육 분야의 남녀 차별을 금지하고, 교육 기회와 환경을 남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제공해야 함을 강조한다. 체육교과에서도 초등부터 대학 및 기타 교육기관에 이르기까지 제공되는 모든 체육활동과 스포츠팀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다(Ware, 2014). Title IX 성별에 따른 교육의 양극화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체육교과에서 주어진 스포츠 참여에 대한 기회의 평등 실천이 체육교육의 양극화 현상을 감소시키고, 성평등에 대한 감각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은 분명할 것이다.

성별 양극화 이외에도, 스포츠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다양한 불평등 및 양극화 현상이 존재한다. 인종에 따른 스포츠 참여 기회의 박탈은 오랫동안 스포츠 양극화 해결을 위한 주요 난제였고,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스포츠 참가 제한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현실이기도 하다. 특히 장애인 스포츠 참여에 대한 배제는 스포츠의 양극화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분야라 할 수 있겠다. 이는 신체적 능력에 대한 고정관념도 원인이지만, 계층적 양극화란 관점에서 보면 장애인 스포츠 인프라에 대한 불공평한 분배에 따라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이라 할 것이다. 장애인 올림픽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시작한 중요한 전환점이었지만, 여전히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접근성 제고는 진행 중인 과제이다.

지역적 불평등 또한 계층적 양극화의 중요한 양상이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보면,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와 지역의 선수는 스포츠 시설, 장비, 전문적인 코치 및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적이다. 낙후한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참여도 마찬가지이다. 경제적 장벽으로 스포츠 참여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공공체육시설의 공급 또한 부족할 수 있다. 전지구적 차원에서 볼 때 저개발국의 스포츠 접근성의 제한은 스포츠 양극화의 중요한 양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스포츠 분야는 기회의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극심했던 분야이다. 그러나 오늘날 인종이나 성별에 따른 참가 제한은 반인종주의(anti-racism)운동과 페미니즘운동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적, 제도적 차원에서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다. 스포츠 참여에 인종에 따른 참가 배제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제1회 근대올림픽에 단 한 개의 이벤트도 없던 여성 종목은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복싱이 정식 종목이 되면서 전 종목에서 여성의 참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앞으로 올림픽에 새롭게 신설되는 종목에는 반드시 여성 종목을 같이 포함하도록 제도화하였다(박보현, 한승백, 탁민혁, 2018).

그러나 이와 같은 기계적 평등의 실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등이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실질적 평등(substantive equality)이다. 기회의 평등 차원에서 보자면 모든 사람에게 스포츠 참여의 기회가 열려 있다. 그러나 기회의 평등은 실현되었지만, 중산층이 무너진 사회에서 경제적인 이유에 따라 스포츠 참여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여성 스포츠에서 나타나고 있는 노동 및 고용의 문제도 법적 제도적으로 어떤 장벽이 있는 것은 아니다. 기울어진 운동장(tilted playing field)이나 유리천장(the glass ceiling)으로 대변되는 실질적 장벽이 존재한다. Yi와 Heu 그리고 Lee(2021)는 1948년 런던 올림픽부터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까지 한국 여성 선수가 획득한 금메달 수는 총 38개로, 전체 메달의 42%이지만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스포츠 팀과 조직에서 여성 지도자와 경영진의 비율은 평균 20%에 불과하다고 보고하였는데, 앞서 20대 80의 사회에서 살펴봤듯이 이 같은 수치는 한국스포츠에 나타나는 성별에 따른 대표적인 계층적 양극화 현상이라 할 것이다.

기울어진 운동장과 유리천장의 장벽이 없는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공정한 스포츠의 장(leveling the playing field)’이다. 실질적 평등의 입장에서 ‘공정한 스포츠의 장’을 만든다는 건, 단순히 기회의 평등을 넘어, 각 개인의 독특한 상황과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스포츠에서 나타나는 계층적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Francis, 2019).

4. 스포츠와 이념적 양극화

1) 이념적 양극화의 개념 및 양상

일반적으로 이념적 양극화(ideological polarization)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신념’ 그리고 ‘가치관’의 극단화를 설명한다. 본 글에서는 ‘믿음’, ‘신념’, ‘관념’, ‘감정’, ‘정치적 · 정당적 성향’, ‘정책적 선호’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념적 양극화(ideological polarization)를 조작적 정의할 것이다. 양극화가 분포의 양극단으로의 쏠림 현상이라고 한다면, 이념적 양극화란 믿음, 신념, 관념, 감정, 정치적 · 정당적 성향, 정책적 선호의 극단적 쏠림과 그에 따른 대립과 갈등 현상을 의미한다.

이내영(2006)은 “이념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목표나 기대, 행동 등을 구성하는 일련의 생



각의 집합으로서, 행위주체의 정치적 태도와 행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인 가치성향과 신념체계”라고 했다. 이념적 양극화와 관련하여 가상준(2014)과 황유선(2013)은 “주로 정책, 이데올로기, 정치적 입장에 중점을 두며, 서로 다른 이념 집단 간의 정책적 차이와 이념적 대립”이라고 정의한다. 유사 개념으로 정서적 양극화(affective polarization)가 있는데, 김기동과 이재묵(2021)은 “사회나 정치 분야에서 개인들의 정서적인 태도와 감정이 뚜렷한 이념, 집단, 또는 정당을 기반으로 갈라지는 현상”을 정서적 양극이라고 했다. 정서적 양극화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지하는 정당과 그렇지 않은 정당에 대한 감정적 태도가 극명하게 갈라지는 현상을 지칭하므로(장승진, 장한일, 2020), 엄밀하게 구분하면 차이가 있겠지만, 큰 틀에서 이념적 양극화의 범주에 포함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처럼 이념적 양극화란 개인의 생각이 집단의 ‘생각 집합’으로 발전하고, 각 집단의 ‘생각 집합’이 중간지대 없이 극단적으로 대립하여 갈등하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집단의 ‘생각 집합’이(각기 다른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극단의 신념 체계로 굳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Breithaupt(2017)는 이를 ‘왜곡되고 편파적인 공감 능력’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공감이란 타자의 감정, 의견, 주장을 최대한 이해하는 태도로 일반적으로 긍정의 개념이다. 그러나 정치적 신념이나 믿음에 과잉 공감하는 경우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발전한다. 일부 극렬 지지자를 자극적 언어로 선동하는 팬덤 정치가 그 예인데, 이 또한 지지하는 정치인에 대한 지나친 과잉 공감을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이 과잉 공감의 감정이 극화되면 다른 진영에 속한 타인에게 공격도 서슴지 않는 증오의 감정까지 발동한다(강준만, 2022b).

편파적 과잉 공감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도덕적 우월감을 그 기반으로 삼기 때문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이념적 양극화에 정치적 올바름 즉, PC주의를 첨부해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Dyson, Goldberg, Fry 그리고 Peterson(2018)이 설명한 정치적 올바름이란 다음과 같다.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이란 소수자들을 차별, 배제하는 언어 사용 및 표현을 지양하자는 신념, 혹은 그에 기반한 사회운동”을 일컫는 말이다. 현재 정치적 올바름은 단순한 언어순화 운동의 차원을 넘어 남녀의 균등한 역할 배분, 진학이나 취업, 승진 등에서 소수자 우대 정책 등으로 확장 적용되고 있고, 성별, 인종 등 여러 집단적 정체성이 합류하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이른바 올바르게 처신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올바름이다. 그러나 이 정치적 올바름은 부자연스럽고 억압적이며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있으며,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현실과 맞물려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PC주의는 도덕, 공정, 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핵심은 ‘도덕’이기에 그 자체로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지향이라 할 것이다. 문제는 이 아름답고 긍정적인 지향에 흠뻑 취한 나머지 PC주의의 실천을 자기과시의 수단으로 삼고,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며, 스스로 도덕과 정의의 화신으로 빙의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나 정책의 오류를 범할 지라도, 자기 확신에 찬 나머지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한 극단주의자(extremist) 또는 도그마티스(Dogmatist)로 전락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강준만, 2022b). 즉, PC주의는 그 자체로 긍정적이지만, 도덕적 우월감과 과잉 공감 때문에 때때로 고립되고 경직된 생각 집합을 만든다. PC주의가 도덕적 우월감에 취해 ‘우리만이 정의’라는 오만한 사고로 변질되어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한 이념적 양극화의 주된 원인이 되는 것이다.

한국 정치에 만연한 정치적 양 진영의 ‘빨갱이’ vs ‘토착 왜구’의 언어를 활용한 낙인찍기(Labeling) 현상도 양극화를 부추긴다. 그들 모두가 정말 빨갱이이고, 그들 모두가 정말 토착 왜구인가. 각기 다른 입장을 지닌 정치 세력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스테레오타이핑(Stereotyping) 하면서 어떻게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겠나. 나와 의견이 다르면 인정하고 토론할 일인데, 낙인부터 찍고, 나와 생각이 다른 상대는 악마이고, 내가 속한 진영은 천사라고 생각하는 도덕적 우월감, 추호의 의심이나 회의도 없이 선과 악을 가르는 날카로운 칼날이 우리가 사는 공동체를 두 동강 낸다(유창선, 2021).

이처럼 이념적 양극화는 정치적 입장, 정책적 입장, 도덕적 우월감, PC주의, 과잉공감, 선동정치, 파퓰리즘 등의 용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자신이 속한 생각 집합에 대한 성찰 없이 타 진영을 무조건 공격하고 악마로 만들어 버리는 선악 이분법의 이념적 양극화는 한국 사회의 면면을 힘들게 만드는 대표적인 문제이자 건강한 민주주의와 사회 통합에 심각한 위협이다.

2) 스포츠에서의 이념적 양극화

스포츠에서의 이념적 양극화는 지난 20년 동안 추진되어온 스포츠 혁신 및 개혁 담론의 궤적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2000년 장희진 선수 선수촌 이탈 사태로부터 시작된 공부하는 학생선수 담론, 2011년 학교체육진흥법 제정 그리고 지난 대선 때까지 뜨거운 이슈였던 2019년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안까지, 한국스포츠는 엘리트스포츠 육성과 관련하여 개혁을 외치는 개혁·진보 진영과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 맞서는 엘리트스포츠 진영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념적 갈등의 장이었다.

(1) 학교체육 개혁진보 vs 엘리트스포츠

두 진영의 갈등이 극에 달한 건 스포츠혁신위원회의 2차 권고안이 발표되면서이다



(2019.06.04.). 한국스포츠의 개혁진보, 좀 더 엄밀하게 학교체육 개혁진영이 내놓은 2차 권고안은 주중 대회 참가 금지 및 주말대회 전환, 혹서기, 혹한기 대회 개최 및 훈련 최소화, 합숙소 폐지 등, 학교 스포츠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대선을 앞둔 시점이었던 2021년 11월에 교육부는 ‘출석 인정 결석 허용일 수 축소안’을 발표했다. 기존의 학생 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출석 인정 결석 허용일 수가 초등 10일, 중학교 15일, 고등학교 30일에서, 2022년부터 초등학교 0일, 중학교 10일, 고등학교 20일로 축소할 것이란 발표한 것이다. 여기에 2023년부터는 초·중고 주중 대회 및 훈련 참가가 전면 금지된다는 내용도 담겼다(김상현, 2022.02.03.). ·

한국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엘리트스포츠 계의 반발은 극심했다. 학생선수 부모들은 ‘스포츠혁신안 백지화 운동선수 학부모연대’의 결성하였고, SNS를 통해 “저는 운동선수 학부모입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스포츠혁신안 백지화를 공약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입니다”란 릴레이 피켓 시위를 벌였다. 체육 정책이 대선전의 정치 쟁점의 정점에 섰을 지경이었다. 이후 전국체육인사랑 네트워크, 서울 체육인 5천여 명 등 성명을 내어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을 재검토하는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공개 지지가 이어졌다. 2000년 이후 공부하는 학생선수 담론을 시작으로 학교체육의 개혁운동을 전개해온 개혁진보 진영과 스스로를 진정한 체육인이라 호명하는 엘리트스포츠 진영의 사람들이 각각의 ‘생각의 집합’의 틀에서 조금의 양보 없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나는 당시 스포츠혁신위원회의 2차 권고안으로 촉발된 논쟁을 학교체육 개혁 세력과 엘리트체육 진영의 권력다툼이자 이념적 양극화 현상으로 파악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학교 내에서 육성되고 있는 엘리트 선수들, 즉 체육특기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란 문제를 놓고, 교육의 원칙을 주장하는 개혁진보와 기존의 시스템을 고집하는 엘리트스포츠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내가 드는 의문은 이 과정에서 “혁신안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대화와 타협의 공론장이 충분히 제공되었는가”이다. 주중 대회 참가 금지 및 주말대회 전환, 혹서기, 혹한기 대회 개최 및 훈련 최소화, 합숙소 폐지, 출석 인정 결석 허용일 수 축소 등 모두 학교 중심 엘리트스포츠 육성이란 담론 체계를 벗어나지 못했고, 그것에 대한 급격한 변화는 기존의 엘리트 육성시스템에 따라 미래를 설계하던 학생선수, 지도자와의 혼란과 충돌은 예정된 절차였다.

대선의 국면에서 양 진영의 정치적 충돌은 기존 체육계에서 진행되었던 개혁의 논의를 단순화시키고, 가치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사실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이 모두 다 수정하거나 철폐해야 할 적폐인가.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선 정국 양 진영의 충돌로 혁신위 권고안은 정치 쟁점화 되었고, 체육계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 논의의 기회는 이념적 대립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념적 양극화의 회오리에 휩싸



여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은 결국 대화와 타협의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던 것이다.

(2) 체육계의 인권 담론과 정치적 올바름

체육특기자제도는 현 한국스포츠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구조적 원인이다. 학습권을 박탈하는 제도적 기제이며, 전문 운동선수 외에 다양한 직업 선택의 기회를 박탈한다. 뿐만 아니라, 체육특기자 제도 속에서 성장한 학생선수는 기본 교육을 받지 못해 일상 문화나 공동체를 이해하지 못한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이 부족한 이들은 삶의 기본적인 가치를 획득하기 어렵다. 특히 체육특기자제도는 학생선수들에게 청소년기에 요청되는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의 함양과 균형적 사회 인식을 가로막는다. 그 때문에 스스로 부당한 폭력과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침해나 차별을 자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폭력이나 성폭력 같은 부당한 처사를 당하더라도 맞서 싸울 수 있는 주체적 역량이 없다. 그러니 스포츠계에 만연한 인권침해의 가장 근원적 원인은 다른 아닌 체육특기자 제도이다. <스포츠혁신위원회 2차 권고안 재편집>

위 인용문이 실제로 정확하게 존재하는 건 아니다. 스포츠혁신위의 2차 권고안의 내용에서 요약하고 재구성한 것이다. 위 내용은 스포츠계에 주요 이슈로 등장한 인권 담론을 잘 뒷받침해준다. 즉, 스포츠계의 폭력과 성폭력이 빈번하게 반복되는 이유가 학생선수의 수업결손에 따른 합리적, 비판적 사고의 결여에 있으며, 이에 학습권의 보장과 학교체육의 정상화는 학생 선수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권 담론의 전개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안에도 담겼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개정 2020. 8. 18.)

2020년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1조에는 과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문구가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바뀌었다.

나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새겨진 ‘국위선양’에서 ‘인권’으로의 문구 변화가 스포츠 개혁·진보 진영의 핵심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인권은 현대사회의 보편적 가치이고,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스포츠를 통해 누구라도 행복을 누리고 그 참여와 과정에 있어서 그 어떤 이유로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차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인권 담론이 개혁, 진보 진영의 도덕적 우월성을 담보하고, 몇



몇 개혁주의자의 과잉 공감에 휩싸여 이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인권 즉, 정의의 실현이란 도그마를 내재한다면 얘기는 달라질 것이다.

부연하면, 스포츠 개혁·진보 진영은 과거의 산물로서 국가주의 스포츠를 타파를 내세우고, 새로운 개혁 시대의 대표 슬로건으로 스포츠 인권을 전면에 내세웠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가주의 스포츠 vs 스포츠 인권'의 이분법적 대립구조를 부각시켰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인권은 보편적 가치를 품은 단어이고, 국가주의는 그와는 상반된 이미지의 상징이다. 개혁, 진보 진영에서 주장하는 학원스포츠에서 국가주의 스포츠의 토대는 1972년 제정된 체육특기자 제도이다. 체육특기자제도는 1972년은 유신이 선포된 해였고, 난무하는 폭력과 인권유린이 스포츠 현장에서도 일상이던 시절을 상징하고, 여전히 경기실적만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선수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포기하고, 학습권을 박탈당하며, 운동만 하는 운동기제로 전락시키는 제도적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2).

나는 학교체육 개혁·진보 진영이 내세운 인권 담론이 PC주의와 영합하면서 한국스포츠에 산재한 제도적 과제를 선악의 문제로 간단히 축소시켰다고 생각한다. 문제를 단순화 시켜 다른 논의의 가능성을 폐쇄하고 흑백논리를 부각했고, 개혁 담론에 저항하는 엘리트스포츠 진영을 대화의 상대로 여기기보다 악마화(demonization)했다.

나는 2017년 '1972년 이전 체육특기자제도의 궤적'이란 논문에서 체육특기자제도가 그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연도의 사실관계보다 중요했던 건 어떻게든 운동선수를 학력과 무관하게 학교에 적을 두게 하려 했던 대한체육회, 교육계, 학교, 지도자 등,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역동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특기자 제도가 1972년에 만들어진 게 아니란 건, 옛 신문을 조금만 들춰봐도 금방 알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인데, 2023년 현재의 체육백서에 여전히 체육특기자제도는 1972년 유신과 함께 탄생한 발명품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개혁진보 진영의 PC주의를 위해 체육특기자제도는 1972년의 유신체제의 산물로 박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와 같은 PC 영합주의가 한국체육의 이념적 양극화를 강화한다. 개혁·진보 진영이 내세운 인권 담론은, 원칙적으로 고귀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도덕적 우월감에 빠져 대화와 포용, 타협의 길을 망각하였다. 결국 현실에서 정책으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진영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타협을 통한 조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한국스포츠계의 이념적 양극화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모든 진영이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본 고에서는 양극화 현상을 계층적 양극화 그리고 이념적 양극화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계층적이든, 이념적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양극화는 사회의 건강을 해치는 분열과 갈등의 언어이며,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대표적 구조적 문제이다. 양극화 현상은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무엇보다, 우리 개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양극화의 장벽이 우리의 노력을 허탈하게 만들고, 오만한 도덕적 우월감이 토해내는 ‘나만 옳고 너는 틀리다’는 소모적 논쟁이 우리 사회를 아군 적군으로 나누어 싸우는 전쟁터로 만든다. 계층적이든, 이념적이든 중간지대가 붕괴하고 양극단에 위치한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사회에서 어떤 희망을 찾기 힘들다.

양극화의 문제 해결을 위해 본 글에서 제안하는 두 가지 키워드는 ‘존중’과 ‘타협’이다. 스포츠의 양극화에서 계층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당연히 공정한 분배를 통해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한 단면일 뿐, 비례적 평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취’와 그에 비례하는 분배 또한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이는 상위 계층뿐 아니라 하위계층에게도 동등이 적용되는데, 개인이 자기 능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그 성취를 통해 사회적 계층이동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어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나는 낸시 프레이저가 언급한 ‘인정’이야말로 기존의 양극화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분배와 성취에서 한 걸음 더 진보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Fraser & Honneth, 2003). 그가 말하는 인정이란 무엇일까. 아마도 인간의 존엄일 것이다. 태어나서 사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 그 자체로 존엄하고,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낸시 프레이저는 이를 위해 사회적 정의가 단순히 경제적 분배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인정과 존중에도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개인이 단순히 경제적 자원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Fraser, Honneth, 2003).

나는 인간의 존엄은 사회적 인정이 그 기반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타고난 존엄성과 인정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스포츠 분야의 물질적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차원의 고려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념적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하고 싶은 키워드는 ‘타협’이다. 일반적으로 타협은 나약하고, 우유부단하며, 원칙을 포기하고, 문제를 회피하는 부정적 언어일 것이다. 그러나 강준만(2020)은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정치지도자에게 “이상주의가 상 상하는 세상과 있는 그대로의 현실 세계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Alinsky(2010)의 말



을 빌어 타협은 그런 관점에서 당연한 귀결이라고 주장한다. 즉, 타협은 현실과 조우하는 일이고, 거래이며 이 거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숨 고르기일 뿐 아니라, 끊이지 않는 이념적 갈등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란 것이다(강준만, 2022a). 이 같은 차원에서 타협이란 나약, 우유부단, 포기, 회피의 언어가 아니다. 타협은 이념적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이고 아름다운 단어”인 셈이다.

스포츠에서의 이념적 양극화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타협을 위한 대화와 협력, 그것이 어느 한쪽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려는 것이 아닌,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의 절충하는 타협이야말로 대립과 갈등을 넘어 협력과 상호 이해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양극화의 개념을 스포츠에 적용, 스포츠 양극화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으로 스포츠 양극화와 관련된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스포츠사회학이 한국의 스포츠 발전과 전체 한국 사회의 통합과 발전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길 기원한다.

참고문헌

- 가상준(2014). 한국 국회는 양극화되고 있는가? 의정논총, 9(2), 247-272.
- 강영혜, 김미숙, 이영, 남기곤, 김동춘(2005).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분야 대책 수립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강준만(2020).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 인물과 사상사.
- 강준만(2022a). 엄마도 페미야? 젠더 갈등과 세대 갈등의 소통을 위하여. 인물과 사상사.
- 강준만(2022b). 정치적 올바름. 인물과 사상사.
- 김기동, 이재묵(2021). 한국 유권자의 당파적 정체성과 정서적 양극화. 한국정치학회보, 55(2), 57-87.
- 김상현(2022.02.03.). 학생 골프 잔혹사 : 출석 인정 결석 허용일수 축소안 무엇이 문제인가? 골프저널. <https://www.golf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33>
- 김성호(2003.02.19.). 〈오후여담〉 티티테이먼트. 문화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03021901010737195002>
- 김원식(2013). 한국사회 양극화와 다차원적 정의. 사회와 철학. 26, 223-250.
- 남인숙(2011). 한국의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교육 격차. 현상과 인식, 35(3), 15-38.
- 박보현, 한승백, 탁민혁(2018). 스포츠사회학. 서울: 레인보우북스.
- 박진도(2023.11.12.). ‘지방소멸’ 부추기는 지방소멸론. 한국농정. 출처: <https://www.ikpne>



- 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890
- 신동균. (2006). 소득분포의 양극화: 개념과 실태. *노동리뷰*, 63-80.
- 신동균. (2007).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 양극화의 추이, 원인, 및 정책적 시사점. *경제학연구*, 55(4), 503-548.
- 어대훈(2023). 2024 Human 사회복지학개론. 서울: 미래가치.
- 유창선(2021).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극단과 광기의 정치. 인물과 사상사.
- 이내영(2006). 변화하는 한국인의 이념지형. EAI·한국일보 공동정치 안보의식 조사(4).
- 이성록(2005.05.02.). 티티타임즈와 공동체 노동. 복지타임즈. retrieved from <http://www.bokjitim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1>
- 이종만(2022.04.16.) 대통령직인수위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전면 재검토’ 발표에 체육계 ‘환영’ retrieved from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9995>
- 장승진, 장한일(2020). 당파적 양극화의 비정치적 효과. *한국정치학회보*, 54(5), 153-175.
- 전병유, 김혜원, 신동균(2006). 노동 시장의 양극화와 정책 과제. 한국 노동 연구원.
- 한승백, 탁민혁(2017). 1972 년 이전 체육특기자제도의 궤적: 입시제도 안에 구축된 스카우트 관행.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30(3), 19-45.
- 황유선(2013). 선택적 노출 행위를 통해 바라본 트위터 공간의 이념적 양극화. *한국언론학보*, 57(2), 58-79.
- Alinsky, S. (2010). *Reveille for radicals*. Vintage.
- Breithaupt, F. (2017). *Die dunklen Seiten der Empathie*. Suhrkamp Verlag. 두행숙 역 (2019).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공감의 두 얼굴. 소소의 책.
- Francis, L. (2019). The Metaphor of a “Level Playing Field” in Games and Sports. *Games, sports, and play: Philosophical essays*, 137-153.
- Fraser, N., & Honneth, A. (2003). *Redistribution or recognition?: a political-philosophical exchange*. Verso. 김원식, 문성훈 역(2014). 분배냐, 인정이나?
- Martin, H. P., & Schumann, H. (1997). *The Global Trap: Globalization and the Assault on Prosperity and Democracy*. Zed Books. 강수돌 역(2003). 세계화의 뒷. 영림카디널.
- Peterson, J. B., Fry, S., Dyson, M. E., & Goldberg, M. (2018). *Political correctness gone mad?* Simon and Schuster.
- Rifkin, J. (1996). *End of work*. North Hollywood, CA, USA: Pacifica Radio Archives. 이영호 역(2005). 노동의 종말. 민음사.
- Ware, S. (2011). *Game, set, match: Billie Jean King and the revolution in women's sports*. UNC Press Books.
- Ware, S. (2014). *IX: A brief history with documents*. Waveland Press.



- Woolf, V. (1929). *A Room of One's Own*. Harcourt Brace Jovanovich. 정윤조 역 (2011). 자기만의 방. 문예출판사.
- Yi, K., Heu, H., & Lee, B. (2021). Women and sport in South Korea: Challenges and achievements as stepping stones to the future. *Women and Sport in Asia*, 101-112.

[illegible]

발제 2.
스포츠 소비와 소득 양극화



발제 2.

스포츠 소득·소비 양극화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전원재_한국교원대학교 교수

들어가며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兩極化, bipolarization)는 한국 사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거론되고 있는 화두이자 유행어라 할 수 있다. 양극화는 협의적(狹義的) 개념으로 경제적 양극화, 특히 소득양극화를 의미하지만, 광의적(廣義的) 개념으로 경제적 양극화를 포함하는 사회 전체적 양극화(경제 및 사회 전반에서 집단 간 격차로 인한 사회집단 간 정치적 가치관의 대립, 생활양식의 분화, 상대적 박탈감의 증가 등)를 의미한다(장미혜 외, 2009).

양극화라는 용어는 특정 자원이 속한 영역 또는 상·하층 집단의 종류에 따라 광범위한 용례(用例)가 있다(신동균, 전병유, 2005). 자원이 속한 영역에 따라 경제적(임금, 소득, 주식, 부동산 등), 정치적(정당 지지율, 대선투표 결과에서 양당 쏠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찬반의 양분(兩分) 등), 사회적(직업·교육에 따른 계층지위별 자원분배의 격차 등), 그리고 문화적 양극화(고·저소득층 간 특정 상품·미디어 점유·이용 비율의 양분 등)가 있다(Gigliarano, 2018). 전통적 양극화의 영역은 소득, 노동, 산업, 성(性)이 포함되고, 새로운 양극화의 영역은 자산, 교육, 문화, 기후위기와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신 사회위험(플랫폼 노동 등)이 포함될 수 있다(김태완 외, 2022).

양극화라는 용어는 불평등(不平等, inequality), 격차(隔差, disparity), 차별(差別, discrimination), 비형평(非衡平, inequity) 등의 다양한 용어로 혼용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논쟁은 자본주의 사회와 그 맥락을 같이 해오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체제 내에서 노동시장의 분화가 이루어졌고, 그 속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이 생기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경제학적 의미에서 양극화는 차별의 의미로 주로 사용되기도 한다.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은 특정 그룹의 구성원에 대해서 그의 '능력(ability)'에 따른 '보장된'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Becker, 1968). 이처럼, Gary Becker(1957)의 중요한 공헌을 기점으로, 경제학자들은 통상 노동시장 차별

을 동등한 자격을 갖춘 노동자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로 정의해 왔다. 결국 양극화의 의미는 각기 다른 학문 분야에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양극화의 문제를 자본주의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쉽게 말해 자본을 활용해 많은 부를 축적하는 기업 혹은 개인이 생겨나고, 이 과정에서 모두를 위한 일자리와 소득이 창출되는 자본주의의 씨앗(발상)이 양극화의 시작임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양극화 현상은 1980년대 이후 나타난 소득분배 악화, 소득불균형의 심화와 함께 시작된 전 지구적 현상이라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의 심화와 함께 촉발되었고, 그 속도는 매우 빠르고, 그 정도도 매우 심하다는 특징이 있다(장미혜 외, 2009).

노동시장 양극화를 살펴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지표인 10분위 임금소득배율(P90/P10 : 10분위 임금기준선을 1분위 임금기준선으로 나눈 값)을 살펴보면 2011년에 4.85로서 미국의 5.03, 이스라엘의 4.91에 이어 세 번째로서 OECD 평균인 3.37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OECD, 2013). 특히, 9/10분위 임금기준선과 1/2분위 임금기준선 가운데 1/2분위 임금 기준선이 낮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노동시장에 양극화가 상위 임금소득이 매우 높은 데서 비롯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하위 임금소득이 낮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황덕순 외, 2018).

이정우(2010)는 이상의 대한민국 상황을 피게티의 경제학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심각한 불평등 현상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해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제시한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고,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며, 복지를 강화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이 네 가지 해법은 모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안들이다. 특히 이 시대의 거대한 장벽으로 떠오른 부동산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라면서, 토지공개념 확립과 보유세 강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양도소득세 정상화, 개발 이익의 공공 환수, 부동산 백지 신탁제도 도입 등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정의로운 분배를 이루는 사회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스포츠로 시각을 좁혀보자. 스포츠계(체육계)도 양극화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회 경제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결국, 스포츠도 예외는 아니다. 인기를 먹고사는 프로 스포츠 종목에도 양극화는 있다. 같은 종목이라도 프로와 아마추어 사이는 말할 것도 없고, 아마추어와 아마추어 사이에도 양극화는 눈에 띈다.

프로스포츠 선수의 소득 양극화는 해를 거듭할 수 록 심화되어 왔다. 종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그 간격은 확실히 커져가고 있다. 흔히 프로선수 하면 뭉치돈을 버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프로축구나 프로야구 선수면서도 연간 2000~3000만원도 되지 않는 수입으로 근근히 생활하는 선수들도 아주 많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2017년의 경우



2만 2,660여 명의 선수가 4천 712억 원의 사업소득을 신고하였으나 이 중 55%가 넘는 2,605억 원을 상위 1%, 소수의 선수가 벌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광일, 2019. 10. 30). 또한 스포츠 선수의 사업소득은 '21년의 경우 3만7518명의 선수가 6093억 원의 사업소득을 신고하였으나 이 중 전체 사업소득의 49.6%인 3022억 원을 상위 1%, 소수의 선수(375명, 1인당 평균 8억 원)가 벌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상위 1%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의 1인당 평균소득은 '21년 기준 8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마추어 선수 세계에도 양극화가 존재한다. 실업은 물론, 대학에 진학하면서도 실력을 갖춘 지명도 있는 선수들은 배짱을 내밀며 적지 않은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반면 대다수 아마 선수들은 겨우 먹고살 만큼의 소득을 얻는데 그쳐 아마 선수들간에도 소위 '빈익빈 부익부'라는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전국체전에 두고 설명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전국체전을 염두에 둔 각 시도의 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전국체전에서 상위입상을 노리는 각 시도 선수단은 무리를 해서라도 다른 팀 우수 선수를 빼내오려고 혈안이 돼 있는 반면, 공급은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선수들의 몸값도 상종가를 치고 있다. 선수들은 출생지는 물론, 직장,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등 자신이 소속된 곳 어디에서나 뛸 수 있기 때문에 경합이 가열되고 있고 이로 인해 몸값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고 있다(위병기, 2005. 12. 13). 이뿐 아니라, 전국 생활체육 대회가 시 혹은 도 단위 대표를 토대로 경쟁을 벌이는 경우에도 흔히 선수의 몸값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대표적인 '귀족 스포츠'로 꼽히는 골프를 치기 위해 골프장을 찾은 사람과 서민들의 대표적 스포츠 관람활동인 프로야구를 보기 위해 야구장을 찾은 관중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많을까? 최근의 골프 인구 증가와 코로나로 인한 프로 스포츠를 관람한 관중의 낮은 비율에 관한 통계 자료로 비교가 큰 의미가 없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한국 경제가 휘청거렸던 해에 골프장 입장객 수가 1천269만명으로 2007년의 1천446만2천명에 비해 177만2천명(12.3%)이 줄어든 바 있다(김종우, 2010. 6. 23). 골프업체가 미국발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그에 반해 2008년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관중수를 합해도(820만1천 명) 그 해 골프를 치러 골프장에 간 사람 수의 3분의 1도 안됐다. 이 역시 스포츠의 양극화를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

이외에도, 주지하다시피, 국내 스포츠 종목 중 인기 종목과 비인기 종목의 저변에 관한 양극화도 오래 동안 지속되어져 온 양극화의 단적인 예일 것이다. 지난 2021년 도쿄 올림픽의 지상파 3사의 중계 보도에 관한 통계 자료를 보면, MBC는 도쿄올림픽 종목 46개 중 불과 22개(47%)의 종목만을 다루었으며, SBS는 25개(54%)의 종목을, KBS는



35개(76%) 종목을 증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사 모두 가라테, 3x3 농구, 요트, 필드하키 등 새로 생겼거나 흔히 알려지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증계조차 하지 않았다(김가현, 2021. 08. 09). 또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빅데이터 플랫폼 '빅카인즈'에 따르면 도쿄올림픽이 개막한 7월 23일부터 폐막한 8월 8일까지 도쿄올림픽 관련 보도 1만 665건 가운데, 주요 종목의 보도량은 양궁 2155건, 야구 1005건, 펜싱 1096건, 배구 1269건, 축구 831건으로 많았지만, 조정 267건, 카누 61건, 서핑 69건 등 비인기 종목은 소수에 그쳤다.

이상에서와 같이, 스포츠의 양극화에 관해 다양한 이슈가 존재한다. 이에 본 소고에서는 스포츠계의 소득·소비 양극화에 대한 다각적인 시각을 살펴보고, 그 시각을 바탕으로 사회학적 상상력을 더해 보고자 한다.

스포츠 소득 양극화: 스포츠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

1. 소득 양극화에 대한 사회학적 시각

1)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 『21세기 자본』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자신의 저서 『21세기 자본』에서 자유 시장 자본주의에서 분배의 불평등 문제가 생기며 그 불평등의 심화는 앞으로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케티 비율 토마 피케티는 세계 주요 국가들의 국세청 납세 자료를 이용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1700년대부터 현재까지 자본소득이 전체 국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분석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19070년대 이후 자본과 소득의 비율이 급상승하고, 또 노동소득이 줄어들면서 자본소득이 상승하면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그가 설명하는 축적된 자본 'R'의 재산 증식 속도를 소득 'G'가 따라잡을 수 없어 세상은 점점 더 불평등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결국 1%의 자산가, 더 나아가 0.1%의 초 자산가가 부를 독점하는 세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세습 자본주의 시대"라고 지칭한다. 따라서 어떻게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에 피케티는 사회국가의 건설, 누진소득세 강화, 세계자본세 도입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며 참여사회주의와 사회연방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정의 사회를 만들자고 주창했다. 피케티가 강조한 정의로운 사회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가능한 한 가장 광범위한 기본 재화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시민적, 정



치적 삶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완전한 참여가 가능한 사회'다(임형두, 2021. 12. 17).

2) 경영학자, 마케팅의 아버지, 필립 코틀러(Philip Kotler): 마켓 5.0

‘마케팅 3.0’ 개념으로 화제를 모은 저자 필립 코틀러는 대부분 국가에서 심화되는 부의 양극화에 주목한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백만장자가 상당수 탄생하는 반면 일반인들은 구매력이 떨어져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세계적 부의 재분배’를 주장한다. 세계의 부는 충분하지만 분배가 왜곡되면서 소비와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코틀러는 경기침체기일수록 위기 대처에 급급하지 말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기 위해 마케팅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하면서 공포에 사로잡혀 비용 절감과 가격인하에 나서는 대신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이다. 필립 코틀러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수억 원어치 쇼핑을 하는 모습을 공유하는 유튜브와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해 존엄성을 위협받는 이들이 공존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마케팅의 관점에서 현대의 양극화를 “부의 양극화”로 설명하면서 다음 <그림 1>과 같이 4가지 형태를 제시한다.



그림 1. 양극화된 사회 (필립 코틀러의 마켓 5.0, p. 82)

코틀러는 이러한 극단적인 양극화는 사회경제적 상류층과 하류층 간에 벌어진 차이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상층은 상류층으로 올라가거나 하류층으로 몰락하는 식의 양극화 현상을 보임을 설명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코틀러는 “SDG(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를 제안하였다.



그림 2. SDGs (2015 유엔 회원국의 '2030의제' 中)

2. 스포츠 노동시장의 불평등(inequality)과 차별(discrimination)

1) 프로스포츠 시장의 소득 불평등

프로스포츠 시장의 소득 불평등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사실 지속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프로의 세계와 자본주의 논리와 맞물린 스포츠 산업 시장의 특성이 빚어낸 산물인 것이다. 프로스포츠 선수의 지위가 높은 종목 혹은 리그일수록 그 상황은 더 크게 벌어진다. 국내 프로야구, 프로축구 선수들이 해외 유명 리그 진출에 인생을 거는 이유이기도 하다. 박찬호, 박세리의 사례를 필두로 박지성, 류현진, 손흥민 등과 같이, 해외의 유명한 리그 선수가 되면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소득의 분배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으나 로렌츠 곡선(Lorenz curve)과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스포츠계의 소득 불평등에 관한 다양한 자료가 생성되고 있다. 로렌츠곡선이란 미국의 통계학자인 로렌츠(M.O.Lorenz)가 한 나라 국민들의 소득분배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인구의 누적비율을 가로축에, 소득의 누적 점유율을 세로축에 나타내어 둘 사이의 상관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한 곡선을 말한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똑같



은 소득을 얻고 있다면 로렌즈곡선은 대각선과 일치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로렌즈곡선은 대각선보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로렌즈곡선이 평평하여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소득분배를, 그리고 많이 구부러져 직각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소득분배를 나타낸다.

국내외 프로스포츠의 소득 불평등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의 축구 무대는 대략 140개의 리그와 7천여개의 구단으로 구성된다. 한 시즌 당 1천만 파운드 이상을 받는 선수도 존재하지만, 하위 그룹의 선수들은 1만 파운드도 채 안 되는 연봉을 받는 등 상위 리그의 평균 연봉은 하위 리그의 2400배를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백승진, 2018. 10. 24). 이는 비단 축구리그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다. 하버드 스포츠 분석 컬렉티브는 주요 스포츠 리그의 지니계수가 0.5를 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정치·사회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경고 신호로 보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선수들의 임금이 얼마나 불평등한가를 알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유명 스포츠 리그(NBA, NFL, MLB)의 소득 불평등 수준과 추세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대다수의 통계적 지표(GINI 지수, 리그 연봉의 분산, 평균 팀별 연봉의 분산, 기본 연봉의 GINI 지수 등)에서 소득의 분산이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Thurman, 2016). 특히, MLB의 소득 불균형이 타 리그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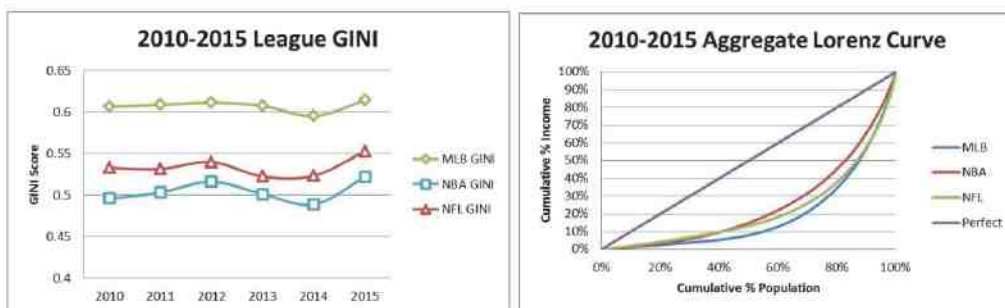


그림 3. 2010-2015 MLB, NBA, NFL GINI & Lorenz Curve (Thurman, 2016).

한편, 김찬룡(2008)은 미국 PGA 투어 선수들의 대회 상금 소득불평등 정도를 지니계수 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PGA 투어 매년 총상금은 1980년 12,216,453 달러에서 2004년 230,082,981달러로 매년 평균 13.28%씩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GA 투어 선수 1인당 평균 상금은 1980년 38,660달러에서 2004년 874,840달러로 나타나, 매년 평균 14.58%씩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PGA 선수들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지니계수 분석결과 1980년~2004년까지의 지니계수 평균은 0.8204로 나타나



PGA 선수들의 대회 상금 소득불평등정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 이후부터 지니계수가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여자 프로 골프 선수들의 상금 소득 불평등에 대한 연구자료를 보면,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1982년 0.311에서 2015년 0.703으로 약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자 프로골프선수들의 2015년 지니계수를 대한민국 일반인들의 2014년 지니계수 0.312와 비교하면 프로선수들이 약 2.3배 크다고 보고한 바 있다(이장영, 2018).

국내 프로 농구선수의 연봉 격차와 불평등에 관한 연구도 존재한다. 이장영(2022)은 2011-12 시즌 한국 프로농구연맹에 소속된 열 개 팀 121명의 1군 선수를 대상으로 소득 불평등을 조사한 바 있다. 연봉 분포는 최소값, 최대값, 평균을 그리고 불평등은 표준편차와 지니계수를 사용하였다. 전체 선수들의 연봉 최소값은 2천 5백만 원이고 최대값은 7억 원이며 평균은 1억 4천 4백만 원이다. 표준편차는 1억 2천 5백만 원이며 지니계수는 .429이다. 이 자료는 1군 등록 선수의 연봉값으로 도출된 결과로, 1, 2 군 선수들이 모두 포함된다면 불평등도는 더 커질 것이다.

2) 프로스포츠의 소득 불평등에 관한 사회학적 시각

박광호, 이재희(2021)는 신인 드래프트 이후 프로야구선수의 1군 지위 성취가능성과 프로 지위 유지가능성에 관한 분석을 진행한 바 있다. 2010년부터 2013년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군 지위 성취 가능성은 66%로 나타났다. 또한 입단 8년차까지 프로 지위를 유지할 확률은 50%로 도출되었고, 입단 후 8년간 프로 지위를 유지할 경우 연봉 평균은 약 5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모든 운동선수들은 최상위 지위를 프로 혹은 국가대표로 설정하고 자신의 열정을 꽤 장기간 동안 투자한다. 물론 종목별 최고 정점의 지위를 획득하고, 그에 걸맞는(?) 소득을 벌어들이는 선수가 극소수임에도 대부분의 운동선수는 정점을 바라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의 소득은 국내 최고 인기 스포츠인 야구의 경우에서만 봐도 평균 5천만 원이다.

이러한 스포츠 시장에서 나타나는 소득의 분배와 불평등은 일반 사회에서 나타나는 형상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을까? 다양한 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임금은 개인의 노동을 대가로 교환관계를 이루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단위이다. 자원기반이론에 따르면, 조직이 시장의 평균적인 임금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제시하면 더 유능한 인적자원을 유인할 수 있으며, 기존의 조직 구성원들도 결과적으로 생산적이 더 향상될 수 있다고 본다(Akerlof & Yellen, 1986). 이를 프로스포츠의 세계에 비유해보자. 일반적으로 유명 구단에서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계약금과 연봉을 제시한다. 마케팅 차원이든, 경기력 차원이든 다양한 차원에서 선수의 능력치가 구단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 영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구단에 엄청난 수익을 남겨줄 수도 있고,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사회적 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과 공정성 이론(Justice theory)에 따르면, 조직 구성원들은 조직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고 인지하게 되면 임금과 조직에 대해 불만을 느끼게 되고, 이는 생산성의 하락과 이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반대로 조직이 구성원 개인의 기여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제공했다고 인지하면, 이들은 조직의 목표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Cropanzano et al., 2017; Tremblay et al., 2000). 다시 프로스포츠의 세계로 돌아오자. 어떠한 프로 선수는 구단에서 제시한 계약금 혹은 연봉이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에도 몸 값(?)을 올리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교환이론과 공정성 이론의 핵심과 반하는 내용일 것이다. 또한 구단이 충분한 연봉을 제시하였다고 인지하지만, 구단, 지도자, 선수 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못한다면 구단의 성적을 위해 충성을 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 역시 상기 이론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내용일 것이다.

다시 선수의 소득 불평등 문제로 돌아오자. 대부분의 프로 선수들은 임금(연봉)의 격차를 두고 터무니없거나 불평등하고 느끼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백승진, 2018. 10. 24). 이 격차는 스포츠 시장의 수요와 공급 메커니즘을 통해 자연스럽게 결정된다고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은 제도 설계자로 하여금 팬들에게 더 큰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시장을 더 키우는 유인책으로 작용한다. 한편으로 대중은 선수들의 소득 격차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며 더 흥미진진한 경기 관람을 위해 주머니를 열기도 한다. 이러한 부분은 일반적인 사회의 소득 격차와 비교하면,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공정'의 관점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토마 피게티는 21C를 세습 자본주의가 극심한 시기라고 한다. "부자는 망해도 삼대(三代)는 간다"는 말로 표현되는 부의 세습이 되는 현상을 지적한 것이지만, 스포츠에서는 다른 얘기일 수 있다. 리오넬 메시의 축구 실력은 아들에게 물려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스포츠 소비 양극화의 다양한 관점

1. 스포츠 소비 양극화: 소득 수준에 따른 접근

대한민국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미약하지만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음을 통계자료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그 추이에 고려해보아야 할 요소들이 다수 존재한다.



직업, 계층, 성별 등 다양한 요소들에 따라서 구체적인 참여형태 및 비율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국민 개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른 스포츠 참가 추이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인해 객관적인 비교가 쉽지 않기에 그 이전 자료를 살펴보자.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주 1회(1회 운동 시 30분 이상) 이상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59.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주기를 1년으로 변경한 2014년 대비 4.4%포인트(p) 증가한 수치로, 2016년 59.5%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특히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생활체육 참여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자. 월 소득 100만 원 미만과 600만 원 이상 응답자 간의 참여율은 16.6%포인트(p)의 격차가 나타났다. 결국, 돈이 있어야 운동도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상우(2021. 10. 26)는 소득에 따른 스포츠 참가 경향을 3가지로 밝힌 바 있다. 첫째,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스포츠 활동을 즐긴다. 둘째, 소득에 따라 참여 종목 종류도 달라진다. 셋째, 고소득층일수록 직접 스포츠에 참여하지만, 저소득층은 관람 스포츠에 몰린다. 요약하자면, 현대인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저마다 다른 양상의 스포츠소비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 낸 여가소비 혹은 과시적 소비 형태로 설명이 가능하다. 여가 시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소득 구조를 가진 자가 유한한 계급이 가지는 소비 형태를 보이기 위해 흔히 말하는 “고급 스포츠”에 참가하는 소비 형태를 보이는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스포츠 소비 형태는 다양한 계급적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강효민, 2013).

한편, 2017년 기준으로 볼 때, 체육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28.9%로 조사됐으며, 이는 2014년(34.5%)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다. 또한 월 소득 100만 원 미만과 600만 원 이상 응답자 간의 격차는 2016년 26.5%포인트(p) 격차에 비해 16.6%포인트(p)로 나타나 크게 줄어든 수치를 보이고 있다. 상기 진술한 코마 피게티의 전략에 따르면, 소득 하위 구간에 존재하는 대중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 제공이 불평등 등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공공체육시설 확충 등의 생활체육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스포츠소비의 형태의 변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이윤구, 2020)

2020년 1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 한 코로나 19는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에



서 전염병 세계 대유행 ‘팬데믹(pandemic)’을 선포하였다. 평범했던 일상은 평범하지 않은 일상으로 변해 버렸다. 마스크를 사용 착용하지 않으면 대중 교통도 이용할 수 없었고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따가운 시선이 집중되었다. 더욱이 이러한 시기가 길어지며 이런 평범하지 않은 삶에 우리는 익숙해지고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바이러스가 어떻게 옮겨질지 모르는 불안감속에 집밖이 아닌 집안에서 우리가 즐겼던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화창한 주말 가족과 집에서 함께하고, 온라인으로 저녁거리를 주문하고, 배달음식으로 외식을 하고, 집에서 운동을 하고, 영화를 보고, 쇼핑하는 일들이 자연스러워졌다.

이러한 변화는 스포츠 소비형태의 변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늘어나는 감염자 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스포츠 시장은 얼어붙었다. 타 산업 시장에 비해 스포츠 시장은 가혹한 상황을 맞게 된다.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 2020도쿄 올림픽 대회와 지역 스포츠 이벤트가 최소 또는 연기되었고, 프로스포츠는 중단 되었다가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었으며, 정부의 강력한 방역 권고로 인해 스포츠시설 및 서비스업 시장은 영업 중지라는 철퇴를 직접 맞아야 했다.

구체적으로 스포츠산업시장의 피해 규모를 살펴보면(표 1), 2020년 전체 스포츠산업 매출은 약 53조 592억원으로 추산되며 전년 대비 약 33.8%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집단 및 대면 활동 기반 스포츠시설업과 스포츠서비스업의 경우 회원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일시적 휴업 혹은 폐업이 증가하였음을 보고 하였다(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20).

[표 1] 국내 스포츠 산업 규모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사업체 수(개)	95,307	101,207	103,145	107,271	-
매출액(십억 원)	72,608	74,696	78,067	80,958	53,592(추정)

출처: 스포츠과학(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코로나 19로 인해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을 피하기 위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언택트(untact)소비가 늘어났다. 이는 스포츠 소비에 변화를 가져오며 스포츠 용품 판매 증가라는 결과를 나타냈다. 먼저, 러닝머신, 계단 밟기 운동기구인 스텝퍼, 아령/ 덤벨 등 홈트레이닝 용품이 급등했다. 밀폐된 공간인 실내 스포츠시설 이용에 대한 불안감과 스포츠센터, 태권도장, 수영장, 요가, 필라테스 등의 스포츠 시설업이 집단 감염이 높은 시설로 분류되어 임시 휴업 혹은 폐업 증가로 운동 공간 접근이 어려워져 홈 트레이닝 용품 소비 급증을 불러왔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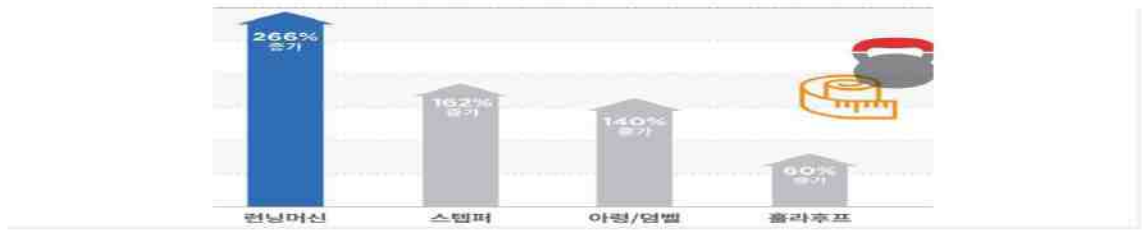


그림 4. 2020년 전년 동기 대비 홈 트레이닝 제품 물량 변화

대중교통 대신 1인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용품, 키보드, 전동휠 등의 판매량이 증가하였다. 지하철과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와 밀접한 상태에서 한 공간에 있어야하기 때문에 대중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키보드 등과 같은 제품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 2020년 전년 동기 대비 근거리 이동 수단 제품 물량 변화

마지막으로 야외 스포츠용품 증가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에 기반한 야외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골프, 등산, 낚시, 캠핑 등과 같이 야외 스포츠 및 레저 용품들의 판매가 증가 하였다.



그림 6. 2020년 전년 동기 대비 야외스포츠 및 레저 제품 물량 변화

이러한 스포츠 소비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스포츠 용품 구매 지출액을 살펴보았다. 국가재난지원금이 교부되는 시점에 스포츠 용품 소비 지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이는



국가재난지원금이 '공돈'이라는 인식으로 5월 3주 이후 평소 구입하기 어려웠던 스포츠용품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다(표 2).

[표 2] 2020년 5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스포츠 용품 구매지출액										(단위: 천만 원)	
스포츠용품 구매지출액	5월 1주 (5/1~5/5)		5월 2주 (5/6~5/12)		5월 3주 (5/13~5/19)		5월 4주 (5/20~5/26)		5월 5주 (5/27~5/31)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10,806	10,364	12,838	10,443	10,853	15,704	10,820	15,280	6,622	10,442	
	6월 1주 (6/1~6/7)		6월 2주 (6/8~6/14)		6월 3주 (6/15~6/21)		6월 4주 (6/22~6/28)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10,527	12,015	9,313	10,515	9,324	9,756	9,541	9,315			
	7월 1주 (6/29~7/5)		7월 2주 (7/6~7/12)								
	2019	2020	2019	2020							
	9,166	9,659	8,717	8,648							

3. 새로운 소비 양극화 형태: MZ 세대의 골프와 테니스 열풍

“명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백화점엔 소비자들이 넘친다. 흑자는 이를 두고 ‘불황의 역설’이라고 꼬집는다. 소비할 돈도 없다면서 값비싼 제품을 사는 경향을 비꼬는 말이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는 틀린 견해다. 비싼 명품을 사기 위해 얼마만큼 소비를 아꼈는지 알 수 없어서다. 이런 현상은 백화점과 중고앱이란 서로 다른 플랫폼이 동시에 인기를 끄는 이유를 설명해주기도 한다.” 출처: 더스쿠프(<https://www.thescoop.co.kr>)

이제 대한민국의 소비 양극화에 대해 좀 더 들여다보자.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시대에선 소득 증가 속도보다 물가 상승 속도가 더 빠르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43만원이었다.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13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9.2배 많았다. 결국 소득 격차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더욱 현저히 벌어졌다. 이러한 현상을 팔마비율*을 통해 살펴보면, 2019년 3.6배에서 2021년 3.9배로 커졌다.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얘기다. 소비지출액도 소득 분위 간 차이가 컸다. 지난해 4분기 소득 5분위 가구는 월평균 455만원을 소비했고, 1분위 가구는 130만원을 썼다. 소득 격차가 크니 소비 양극화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법도 하다.

하지만, 최근의 소비 양극화는 이전과 좀 다른 형태라는 걸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가령,

* 팔마비율(Palma ratio)은 지니계수, 로렌즈곡선처럼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호세 가브리엘 팔마 영국 케임브리지대 명예교수가 개발한 지표로 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을 하위 40%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지표로, 소득격차가 클수록 커진다. 다시 말해, 팔마비율이 클수록 소득 양극화가 심하며, 낮아지면 소득 격차가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



가치를 두는 제품에는 가격을 개의치 않고 지갑을 여는 반면, 그렇지 않은 제품에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식이다. 그 중심엔 허세와 가치란 서로 다른 소비 행태가 깔려있다. 김경자(2023. 03. 28)는 이러한 형태를 “짠테크와 허세”로 해석한다. 이 경향은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MZ세대는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가성비 좋은 편의점 도시락을 구매하거나 중고거래를 통해 필요한 물건을 사고판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SNS공간에서 그들이 구매한 럭셔리 제품들을 공유하며 자랑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MZ세대의 스포츠 소비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관한 기사 내용이다.

“ ‘굿샷’보다 ‘인증샷’...MZ세대는 왜 ‘이 운동’에 빠졌을까? ” 코로나19 이후 MZ세대 소비 비중은 17% 늘었다. 코로나19 이후 MZ세대인 2030의 소비가 2019년 대비 2021년도에 17% 증가했다. 물론 주요 골프 소비 연령대는 여전히 50대가 2021년 기준 40.1%를 보였지만, MZ세대의 소비 증가는 눈 여겨 볼만하다. 출처: 이후도(2022. 09.07)

위 기사에서 언급한 “이 운동”은 골프와 테니스를 말한다. MZ세대가 골프와 테니스 시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골프 인구 전체 515만 명 중 일명 MZ세대는 115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코로나-19 시대 전부터 시작한 젊은 세대의 골프 붐은 이제 시장에서 무시 못 할 정도의 비율로 성장하고 있다(박상경, 2022. 12. 07). 최근 골프시장 환경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몇 년째 골프가 대세 스포츠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주된 원인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속에서의 소비환경 변화와 MZ세대가 주축이 된 ‘골린이 열풍’을 들고 있다.

골프와 함께 테니스도 MZ세대를 중심으로 열풍이다.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의 소비 트렌드 조사 결과를 봐도 MZ세대의 테니스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신한카드 이용 건수를 보면, 테니스장 이용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3%나 증가했으며, 주목할 것은 코로나19 이후 인기라던 홈트(홈트레이닝)에 사용된 소비는 같은 기간 7% 줄었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소는 “코로나19 이후 가맹점이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 중 하나가 테니스장”으로, 2019년 1~9월과 2021년 같은 기간 주요 업종별 가맹점 신규 개설 및 해지 건수를 비교한 결과, 테니스장 신규 가맹점은 1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후도, 2022. 07. 19).



그림 7. MZ 세대 운동 영역 별 이용 금액(이영호, 2023. 5. 18)

이러한 스포츠 소비 형태는 MZ세대가 보이는 “짠테크와 허세”의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다음은 MZ세대의 스포츠 소비 형태에 관한 기사이다.

“우선 젊은 층이 주로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이 테니스 열풍에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스타그램머블(Instagrammable)’한 운동으로 테니스만한 종목이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서죠. 인스타그램머블이란 ‘인스타에 올릴 만한’이란 뜻을 가진 신조어입니다. 경기 자체를 즐기기보다는, 멋진 테니스 의상을 입고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남기는 걸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테니스는 팬츠, 스커트까지 어지간한 패션 의류 못지않을 정도로 화려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 남기기도 제격인 거죠.” 출처: 이후도(2022. 09.07)

MZ세대는 자신의 여가활동을 남들에게 적극적으로 보여주려는 성향이 있으며(김진국, 박충일, 2021), 다른 참여자들에게 좋은 이미지, 자기만족을 얻기 위해 고가의 의류 및 용품을 소비하는 여가로의 골프나 테니스를 즐기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허성수, 전태준, 2011). 하지만 MZ세대의 소비 형태를 단순히 허세라고만 단정은 지을 수 없다. 그들이 골프와 테니스에 참가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소비를 절약하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19가 골프와 테니스 열기에 한몫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일례로 축구나 농구 같은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핵심인 코로나 방역 기준으로만 보자면 할 수 없는 운동이기에 골프나 테니스처럼 비교적 접촉이 제한된 스포츠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특히 자전거 혹은 홈트레이닝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던 MZ세대들이 다른 비 접촉 스포츠로 눈을 돌렸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나가면서

본 소고에서는 스포츠 양극화에 관한 이슈들과 함께 다양한 사회학적 시각에 대해 살펴보았다. 물론 “딱 떨어지는 정답” 혹은 “해결방안” 등에 관한 답은 도출해 내지 못했지만, “정답에 갈 수 있는 공식의 형성” 혹은 “스포츠 양극화 현상에 대한 분석 방향 설정” 정도의 수준에서 접근해 볼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사실인즉 스포츠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양극화 형태에 관하여 사회학적 시각이 투영되거나 양극화에 관한 사회적 담론을 분석한 연구는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김기운, 2020). 특히 양극화에 대한 스포츠 현상에 관한 사회학적 접근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다각적인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일례로, 본 소고에서는 다루지 못하였지만, 스포츠의 양극화를 정부의 스포츠 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국내 스포츠 환경 조성 및 발전(sports development)에 있어서 시도되는 다양한 제도에 관한 양극화 문제도 추후에 다루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차제에 학계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스포츠 양극화에 관한 다각적인 해석 및 분석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관련하여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소고의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효민(2013). 소비사회, Veblen의 『유한계급론』과 여가스포츠 소비의 계급화 구조. 한국여가 레크리에이션학회지, 37(2), 45-58.
- 김가현(2021. 08. 09). “요트·가라테는 안 나오지?” 인기 경기만 몰린 올림픽 중계. 서울신문.
- 김기운(2020). 스포츠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 바우만(Z. Bauman)의 시각으로.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33(3), 60-76.
- 김용석(2022. 09. 02). "골프장, 3년간 소비액 23% 증가... MZ세대 비중은 17% 늘어". 뉴스핌.
- 김진국, 박충일(2021). 수정 IPA방법을 활용한 MZ세대의 레저스포츠관광 선택속성에 대한 연구.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9(3), 79-93.
- 김태완, 이주미, 김기태, 임완섭, 송치호, 김명중, 김영미(2022). 한국사회 양극화 진단과 사회정책 대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찬룡(2008). 지니계수를 이용한 PGA 선수들의 대회 상금 소득 불평등 분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1(1), 173-186.



- 남상우(2021. 10. 26). [문화가산책] 소득수준과 스포츠 참가. 대전일보.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결과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박광호, 이재희(2021). 신인 드래프트 이후 프로야구선수의 1 군 지위 성취가능성과 프로 지위 유지가능성 분석. 한국웰니스학회지, 16(2), 63-71.
- 박상경(2022. 12. 07). MZ 골프 인구 115만...연습장 선택 기준은 가격 아닌 시설+인테리어. 조선일보.
- 신동균, 전병유(2005). 소득 분포의 양극화 추이: 1997-2003. 노동경제논집, 28(3). 한국노동경제학회. 77-109.
- 이광일(2019. 10. 30). 잘나가는 상위 1% 가수와 0.1% 스포츠 선수 동종업종 소득의 50% 차지. 한국방송뉴스.
- 이영호(2023. 5. 18). "MZ세대, 바디프로필·테니스·골프에 아낌없이 돈 쓴다". 한국경제TV.
- 이윤구(2020). 코로나-19 이후 스포츠소비 동향분석. 스포츠과학, 152, 79-84.
- 이장영(2018). 한국 여자 프로 골프선수들의 상급 불평등. 사회과학연구, 31(1), 207-219.
- 이장영(2022). 한국 프로 농구선수의 연봉격차와 연봉 불평등 연구. 사회과학연구, 34(2), 231-248.
- 이정우(2010). 불평등의 경제학. 후마니타스.
- 이후도(2022. 09.07). '굿샷'보다 '인증샷'...MZ세대는 왜 '이 운동'에 빠졌을까?. 조선일보.
- 임형두(2021. 12. 17). 토마 피케티의 화두로 바라본 한국사회 '불평등'. 연합뉴스.
- 위병기(2005. 12. 13). [이슈&포커스] 아마추어 선수 몸값 '극과 극'. 전북일보.
- 유일지(2023. 10. 10). 이수진 의원, "가수·스포츠 선수·유튜버들의 소득 불균형 심화". 세정일보.
- 장미혜, 민현주, 이택면, 염유식(2009). 경제·사회 양극화의 현황과 대응 방안(3차년도):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사회자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황덕순, 윤자영, 전병유, 유정향(2018).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방안 연구 -저임금근로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 허성수, 전태준(2011). 생활체육 참가자들의 상징적 소비성향과 운동참가수준, 스포츠자신감 및 운동 중독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50(3), 189-201.
- Akerlof, G. A., & Yellen, J. L.(Eds.)(1986). *Efficiency wage models of the labor marke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cker, Gary S. (1957). *The Economics of Discrimina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ecker, Gary S. (1968). "Discrimination, Economic." in D. L. Sills(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Macmillan and Free Press, Vol. 4, 208~210.
- Cropanzano, R., Anthony, E. L., Daniels, S. R., & Hall, A. V.(2017). Social exchange



theory: A critical review with theoretical remedies. *Academy of Management Annals*, 11(1), 479-516.

Thurman, J. S. (2016). *Income Inequality in American Professional Sports Leagues*. Economics Undergraduate Honors, University of Arkansas, Fayetteville.

Tremblay, M., Sire, B., & Balkin, D. B.(2000). The role of organizational justice in pay and employee benefit satisfaction, and its effects on work attitudes. *Group & Organization Management*, 25(3), 269-290.

발제 3.
스포츠 젠더 양극화



양극화 시대와 스포츠의 젠더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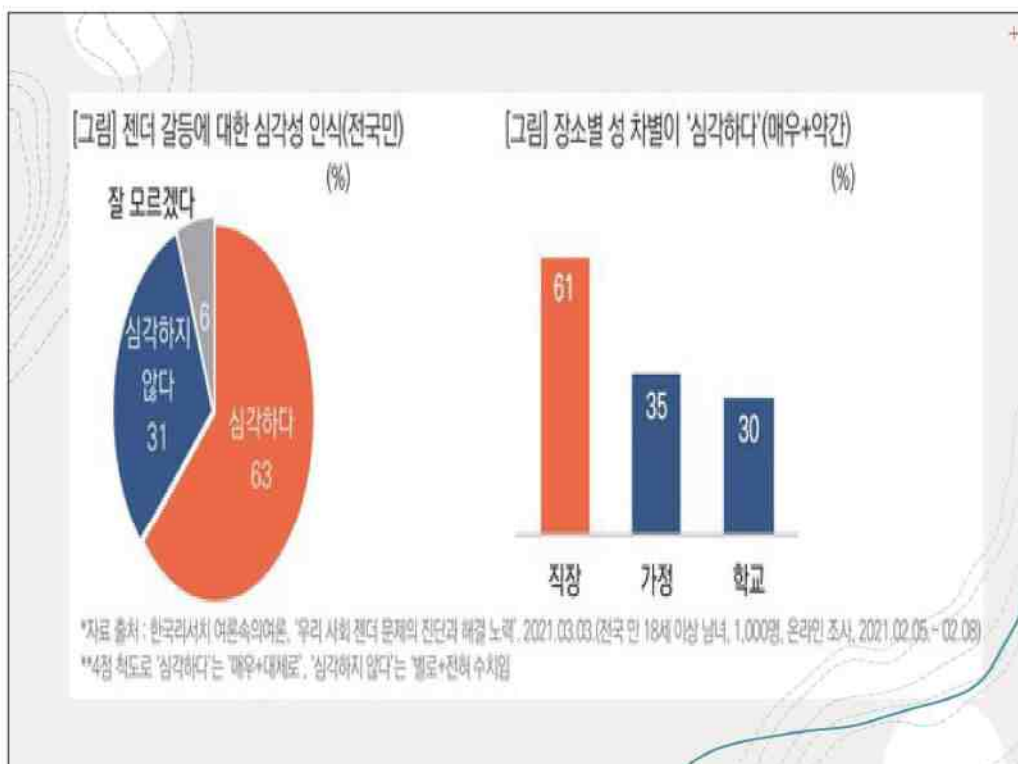
이정래(경북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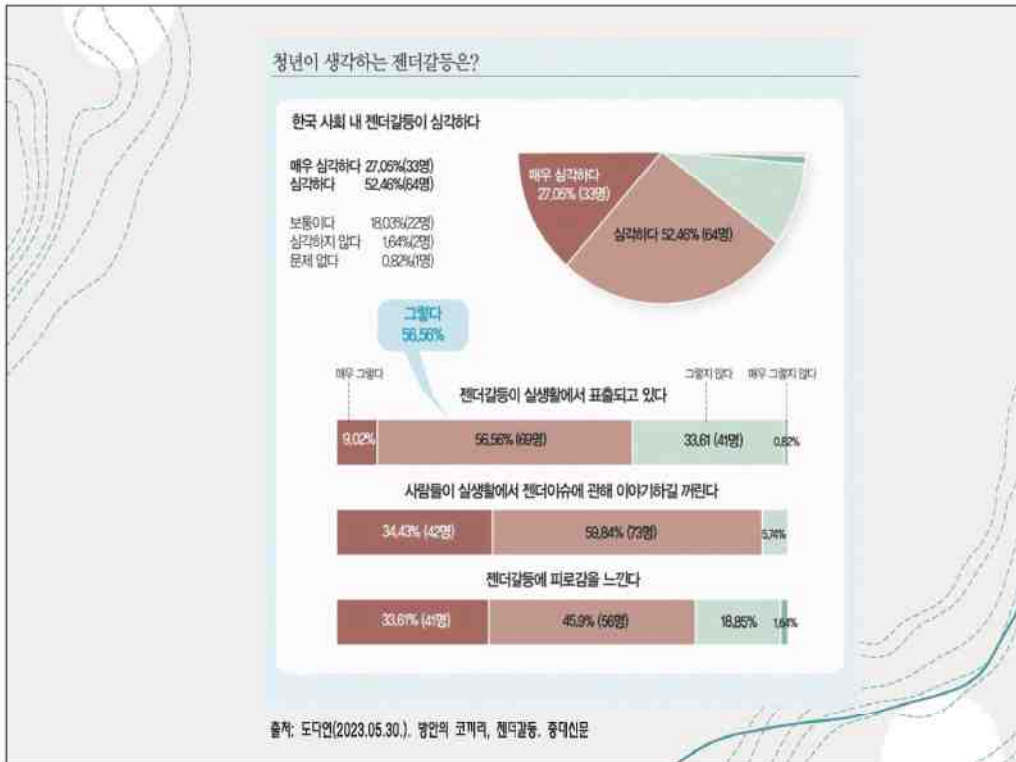


닭다리에 깨달은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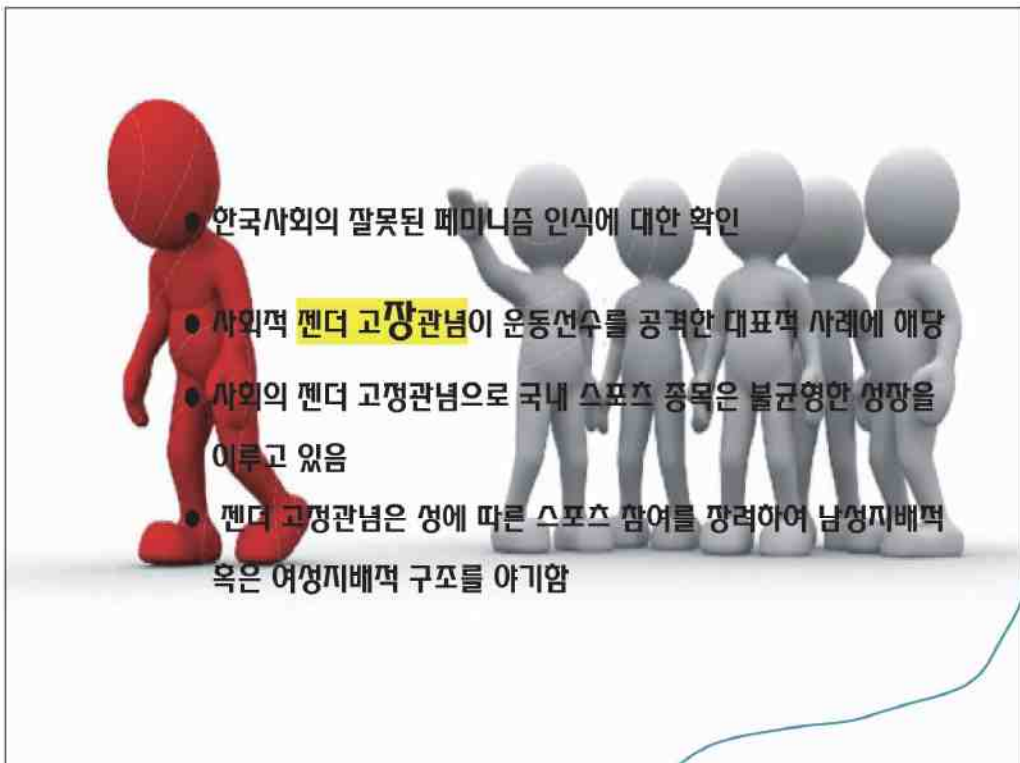
‘불평등’은 누군가는 필요한 것을 누리지만,
누군가는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Schwalbe, 2008)





- + 정치적으로 2017년 박근혜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일조한 청년 남성중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보수정당 후보를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를 인지한 여성이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택하면서(이운정, 2022), 청년층 내 성치는 더욱 크게 느껴졌다.
- + 특히, 여론을 통해 증폭된 '이대남'에 대한 관심은 '이대녀'에 대한 관심으로 전이되었고, 이는 젠더갈등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균열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도록 했다(김한나, 2022).

청년 남성에서 팽배한 페미니즘에 대한 혐오 VS 남녀 간 불평등과 여성에
가해지는 폭력 및 위협 자체를 부정하는 것에 대한 청년 여성의 분노





사회의 젠더 갈등 VS 스포츠의 젠더 갈등

저항목표	확실한 대상자의 공격	조직에 대한 저항
수단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한 음모의 동원	당연함으로 프레임화 시키기
과정	억울함을 토로	합당한 권리 주장

사회의 젠더갈등과 스포츠의 젠더갈등은 다른 시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IOC 성평등 리포트

- 올림픽 참가 선수의 남녀 비율을 동일하게 한다.
- 경기시간, 라운드 횟수, 장비 등에 차별이 없는지 조사하여 성평등하게 운영한다.
- 코치는 성별 균형을 대표에 선발하며 IOC집행위원 등은 기존 30%를 넘어 남녀 동일 비율이 되도록 한다.

* 스포츠 경기, 미디어, 예산 등 5개 분야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25개 권고안으로 구성

혼성종목의 발전

- 2020년 도쿄올림픽의 혼성 종목은 18개 종목
- 개회식 때 남녀기수가 입장 할 수 있도록 규칙을 수정
- 복싱종목에서 남성 체급을 하나 줄이고 여성 체급을 늘려 남녀 체급 수(7개)를 동등하게 함
- 혼성종목의 확대로 전체 참가 선수의 49%가 여성이 됨

- 아티스틱 스위밍(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2017년 7월부터 새로운 종목명으로 바뀜
- 1954년 국제수영연맹에서 정식종목으로 인정
-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
-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단제한 최대 2명까지 남자 선수 출전이 허용됨

한국 V리그 누적 관객수

단위:명				
구분	남자배구		여자배구	
22-23시즌	214,178	34% ↓	347,267	38% ↑
18-19시즌	324,682		251,064	

- TV 평균 시청률 남자부 0.62%, 여자부 1.23%
- 여자부 흥국생명 & 한국도로공사 챔피언 결정전 5차전 시청률 3.40% 역대 V리그 1위의 신기록

출처: [경안일보]2022-2023 시즌 남프로배구, 관중수에서 극명한 차이 <http://www.g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0281>



한국 KBL & WKBL 누적 관객수			
단위:명, %			
구분	남자농구	여자농구	누적 관객비율
22-23	687,303	85,198	12.40%
21-22	337,224	34,218	10.15%
20-21	110,180	1,757	1.59%
19-20	653,355	88,632	13.57%
18-19	873,782	109,222	12.50%
17-18	848,395	108,885	12.83%
16-17	927,844	112,726	12.15%
15-16	1,030,846	135,936	13.19%
14-15	1,163,557	148,326	12.74%
13-14	1,303,988	143,070	10.97%
12-13	1,206,260	122,564	10.16%

출처: KBL 홈페이지 <http://www.kbl.or.kr/story/record>
WKBL 홈페이지 <https://www.wkbl.or.kr/history/crowd.asp>

프로배구 남녀 상금 비교		
부분	선정 기준	시상금
평균리그 1,2,3위	평균리그 기준 팀 순위	1위 (남) 1억 2천만원 (여) 1억원
		2위 (남) 7천만원 (여) 5천만원
		3위 (남, 여) 3천만원
챔피언결정전 우승	챔피언결정전 우승팀	남: 1억원 여: 7천만원
챔피언결정전 준우승	챔피언결정전 준우승팀	남: 5천만원 여: 3천만원

출처: 남자배구보도 인기 높은 여자배구 '상금격차'은 그대로 <https://www.khan.co.kr/sports/sports-general/article/202201101128001>



KPBA 남녀 상금 비교

2023 시즌

단위: 원

남자대회	상금	여자대회	상금
제 25회 DSD 삼호컵 프로볼링 대회	1억 7백만	제 25회 DSD 삼호컵 프로볼링 대회	5천 3백만
2023 MK HC컵 프로볼링 대회	1억 천만	2023로드필드 KPBA 레이디스컵 프로볼링 대회	3천만

한국 배구 샐러리캡 현황

2022~23시즌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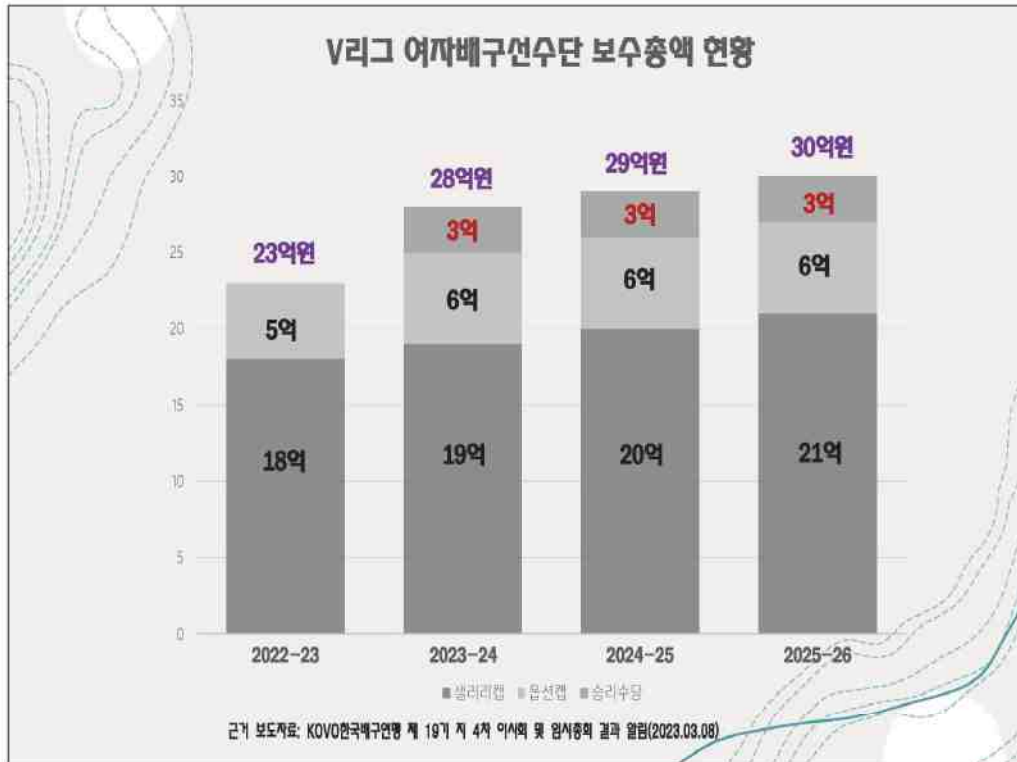
구분	샐러리캡	옵션캡	승리수당	총 연봉
남자배구	41.5억	16.6억	0	58.1억
여자배구	18억	5억	X	23억

2023~24시즌

단위: 원

구분	샐러리캡	옵션캡	승리수당	총 연봉
남자배구	41.5억	16.6억	0	58.1억
여자배구	19억	6억	3억	28억

출처: KOVO 한국배구연맹 <https://kova.co.kr/KOV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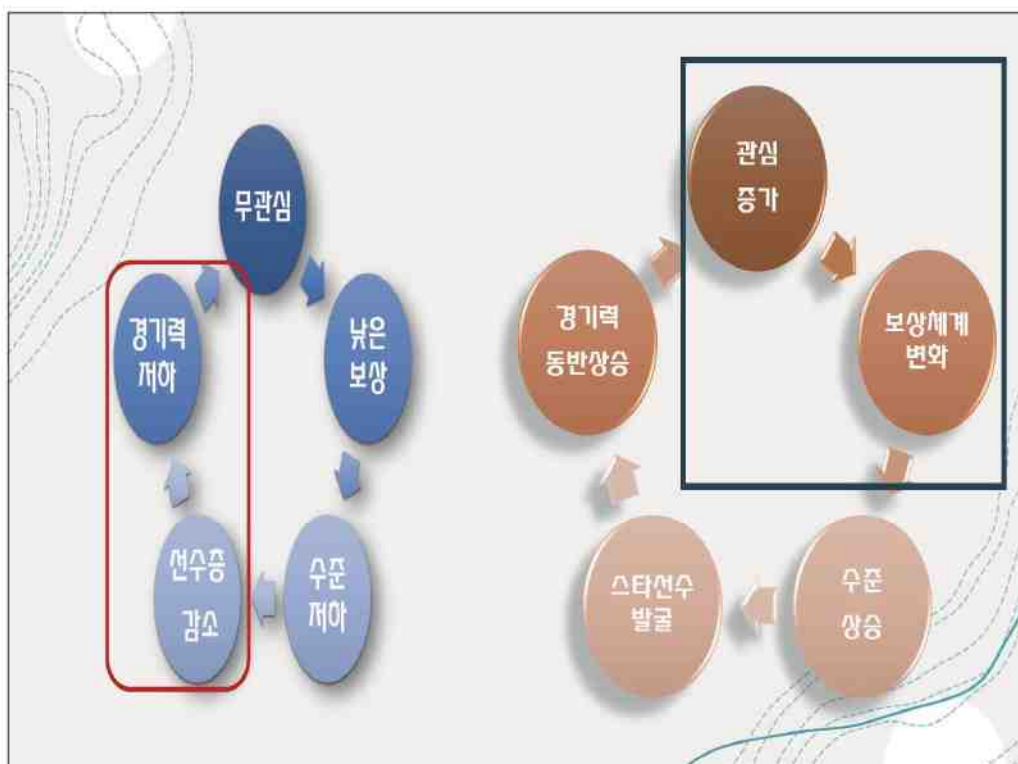
2023시즌 KPGA & KLPGA 대회 상금 비교

KPGA	상금	KLPGA	상금
2023 KPGA우리 금융 챔피언십 대회	15억	안와 클래식 2023	17억
캐네시스 챔피언십	15억	아나금웅그를 챔피언십	15억
제 66회 KPGA선수권대회 with A-ONE CC	15억	크리스토프앤씨 제 45회 KLPGA 챔피언십	13억
코오롱 제 65회 한국오픈	14억	두산건설 we' ve 챔피언십	12억
제 39회 신한동에 오픈	14억	KB용 스타 챔피언십	12억
SK telecom OPEN 2023	13억	제 23회 하이트 진로 챔피언십	12억
제 42회 GS칼텍스 매경오픈	13억	상상인 한국경제 TV오픈 2023	12억
LG SIGNATURE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13억	제 10회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10억
연대대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12억 5천	대보아우스디 오픈	10억
아나은행 인비테이셔널	10억	2023 동부건설 한국토지신탁 챔피언십	10억
백승울당스-아시아드CC부안오픈	10억	SK윌더스 SK텔레콤 챔피언십 2023	10억
제 13회 대상토코리아 매치플레이	8억	메디얼 한국일보 챔피언십	10억

출처: <https://www.kpga.co.kr/> KPGA 홈페이지, <https://klpga.co.kr/web/main/index>

관련기사: KLPGA 60% 불과한 KPGA 총상금... "역차 급프가 너무 빨라져서" <https://www.asiae.co.kr/article/2022081217011456655>

- “대회 수익이 선수의 임금 책정과 연동된다. 여자 스포츠가 남자 스포츠만큼 인기를 얻는다면 그 만큼 돈을 받을 것이다” 아틀란타 유나이티드 FC프랑크 더 부르 감독
- “선수의 연봉과 상금은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 형성된다. 남녀 선수의 신체적 차이가 경기력의 차이로 이어지고, 이는 시장 경쟁력의 차이로 귀결된다”
- 골프의 경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가 한국프로골프(KPGA)보다 상금이 더 많은 이유는 여자선수라서가 아니라 인기가 많아서 이다.





산업별 성별 임금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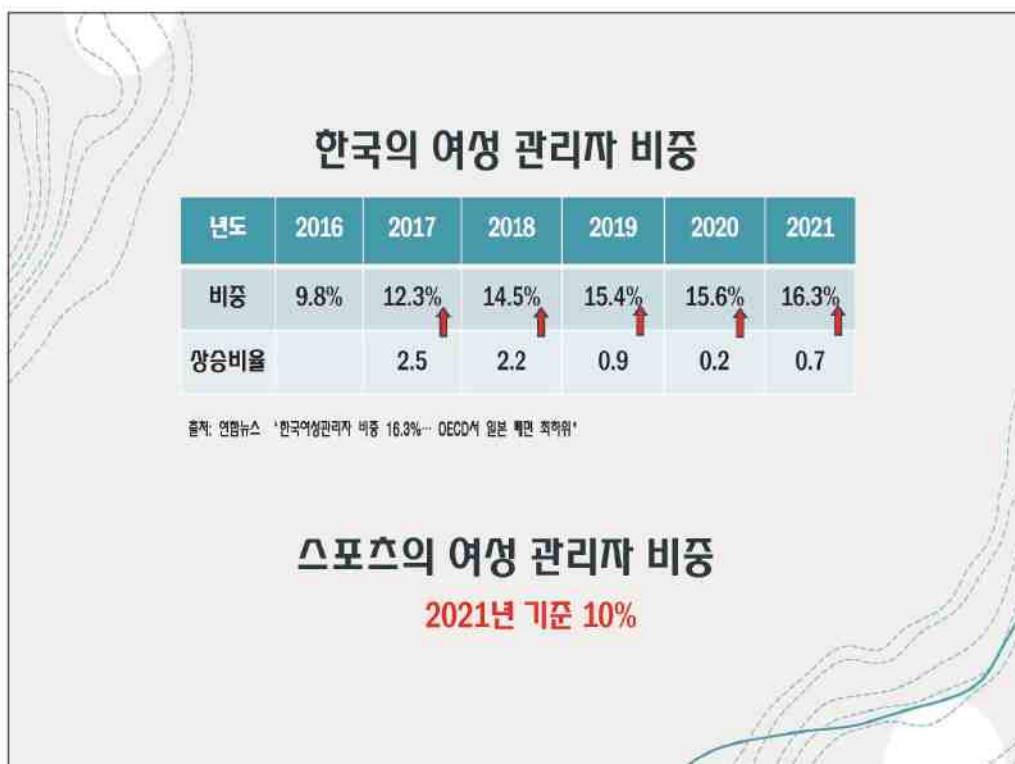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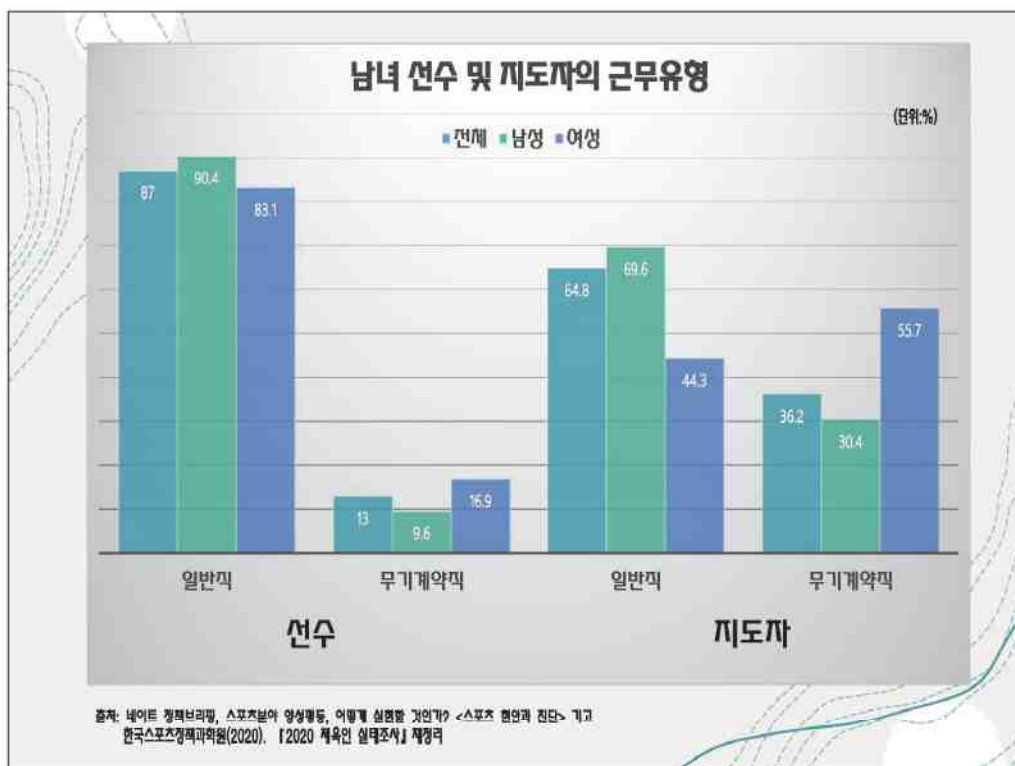
출처: 여성가족부 「2022년 성별임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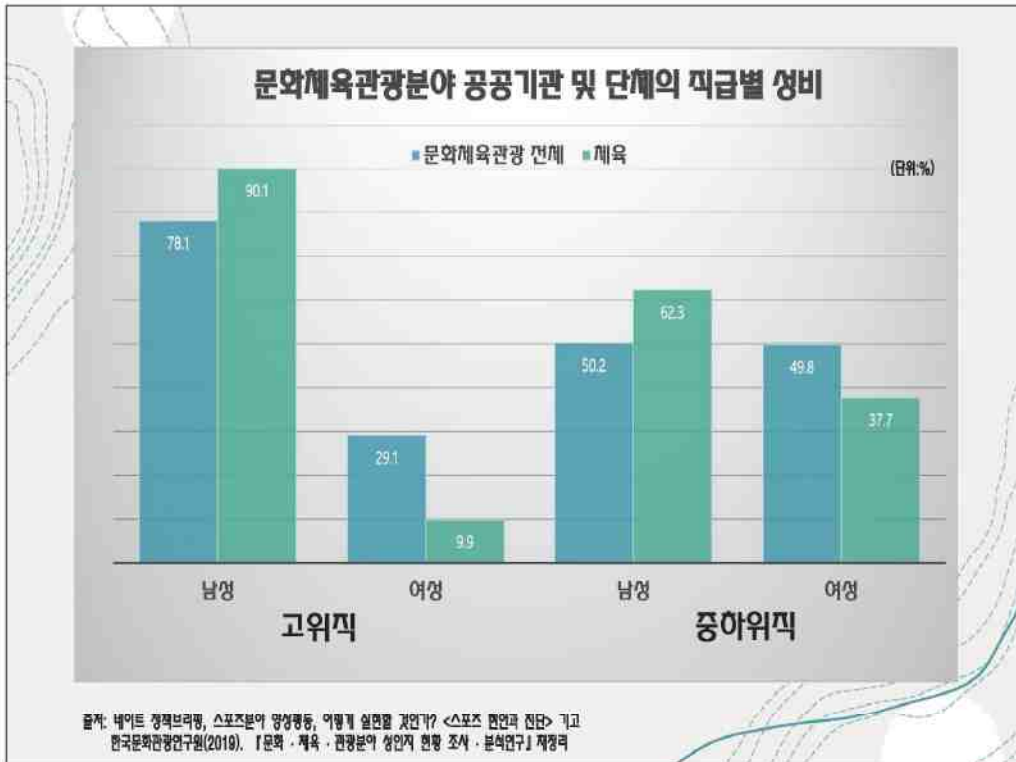
남녀 선수 및 지도자의 한해 수입

단위:명, 만 원, %

구분	선수			지도자		
	사례수	직업선수 활동 시작 당시 한해 수입	2019년 기준 한 해 수입	사례수	지도자 활동 시작 당시 한해 수입	2019년 기준 한 해 수입
전체	2,696	2,970	3,790	3,504	2,095	2,919
남성	1,427	3,044	3,855	2,766	2,226	3,107
여성	1,269	2,887	3,718	736	1,607	2,215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	94.8%	96.4%	-	72.1%	71.3%

출처: 네이버 정책브리핑, 스포츠분야 양성평등,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스포츠 현안과 진단> 기고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2020). 「2020 체육인 실태조사」 재정리





2016년 미국 여자 축구대표 팀과 미국 축구협회와의 싸움



- 미국 축구협회의 입장 - 여자 월드컵의 상금규모는 남자 월드컵의 10분의 1도 안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기는 어렵다
- 여자 대표 팀의 주장 - 미국 여자 대표 팀은 월드컵과 올림픽에서 4번 씩 우승했는데 비해 남자 대표 팀은 월드컵 우승 근처도 가 보지 못한 성적을 동일 임금을 요구하는 주요 근거로 삼음
- 미국축구협회는 여자대표 선수들에게 손배배상액 2200만달러(약 262억원)를 즉시 전달하고, 200만 달러(24억)를 출연해 여자 축구 발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
- 여자대표 팀 선수들에게 월드컵 대외 보너스를 포함해 남자 대표 팀과 같은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속
- 브라질과 잉글랜드의 축구협회는 남녀 동일 임금을 약속한 상태
- 네덜란드, 노르웨이, 오주는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선언

대한축구협회 시간은 거꾸로 간다.





- 2018년 러시아월드컵 본선행을 확정 한 뒤 남자 선수들이 받은 포상금액 24억원
- 41명이 기여도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누어 받음. 손흥민선수 8,000만원 수령
- 2019년 프랑스 여자월드컵 본선 진출 여자대표 선수들에게는 총 1억 8000만원
- 한 선수당 600만원 씩 돌아가서 13배의 차이
- 훈련 수당의 차별 지급(소집 하루 당): 남자 A대표 선수 10만원 VS 여자 A대표 선수 5만원
- 다른 종목의 경우 국가대표 입촌 시 남녀 차별 없이 훈련 수당(2019년 기준 1일 6만원)
- 2015년 축구 국가대표 남녀팀의 항공권 등급 규정의 문제 발발 - 남자 A대표 팀 선수들은 3시간 이상 이동할 때 비즈니스석을 제공 VS 여자 A대표 팀 선수들은 이코노미석 제공
- SBS의 취재가 시작되자 대한축구협회는 “남녀 대표팀 임금 격차와 관련해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개선 중이다. 더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출처: 이명환(2019.03.15). SBS 취재파일 여자 축구대표팀 훈련수당, 남자팀의 절반...임금차별 왜?



“여자축구 국가대표 훈련 소집 시 축구화와 운동화는 지급해 줍니다. 하지만 트레이닝복은 입은 건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대회를 나가거나, A매치, 평가전 때 입은 유니폼은 가져가게 해 주지만 소집 때와 마찬가지로 다른 의류는 반납해야 합니다.
남자축구 국가대표 팀은 예산이 많아 반납하는데 없는데, 왜 항상 여자축구만 예산이 없어서 반납하고 재활용하는지 이해가 안돼요. 저희도 엄연한 국가대표인데 말이죠. 진짜 여자축구는 열악 그 자체라고 생각해요” [여자축구 국가대표 출신 A씨]

스포츠 장, 여성에게만 불공평한가?

- 스포츠사회학은 남성 지배구조 속 불평등한 여성의 스포츠 참여에 주목
- 특정 성(sex)에 따라 특정 종목에 참여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시' 하는 관점과 이를 '재생산' 하는 사회적 구조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스포츠 속 젠더 불평등을 강화하고 있음
- 남성이 주도권을 갖는 공간이 존재하여 여성을 주변화(남상우, 2016)한 것처럼 또 다른 젠더화 된 권력관계가 존재하여 남성들에게도 불공평한 스포츠 참여공간으로 작용하고 있음(홍지은, 임용석, 2018)



자유주제 발표 Session #1
(교양강의동 303호)

사회 : 최윤소 (건국대학교 교수, 국제이사)



자유주제 발표

한국세미프로선수를 위한 취업지원에 관한 연구: 일본여자축구선수의 듀얼커리어 사례를 통한 고찰

신은진_호쿠세이가쿠엔대학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세미프로선수의 취업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드워크를 통해 알게 된 듀얼커리어를 가진 일본여자축구선수의 노동환경과 그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듀얼커리어 노동구조를, 한국의 스포츠 상황에 부합하는 형태로 재구성하여, 한국세미프로선수의 취업 알선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려고 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운동선수 채용’이라는 스폰서기업의 새로운 후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둘째, 현재 실시되고 있는 취업지원(자격증 취득, 멘토링 등)의 차원을 넘어, 선수들이 스폰서기업에 채용될 수 있도록 취업 알선까지 담당 및 진행하는 실질적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다. 셋째, 운동선수들에게 낙인 되어있는 선입견(학습 능력 부족, 폭력성 등)을 개선해 나가는 프로그램 구축도, 사회 전반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이, 현역 운동선수들에게 듀얼커리어를 통한 자기 계발 및 경제적 안정감을 얻게 할 것이라 예상된다. 또 그들이 세컨드커리어로 경력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을 경감시키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듀얼커리어 개념을 도입한 취업 알선 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 한국세미프로선수, 듀얼커리어(Dual Career), 취업지원, 일본여자축구선수

[illegible]



자유주제 발표

주간활동센터 종사자가 경험하는 성인발달장애인 신체활동 지도의 어려움

예 윤_경북대학교, 김경오*_경북대학교

본 연구는 주간활동센터 종사자가 경험하는 성인발달장애인 신체활동 지도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포토보이스 방법을 통해 미시적으로 이해하고자 수행될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D도시에 소재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종사자 7~8인으로 구성될 것이다. 연구방법은 참여적 실험연구의 하나인 포토보이스 기법을 활용할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주제에 부응한 테마의 사진들을 찍게 될 것이고, 포커스 그룹을 통해 심층면담을 진행할 것이다. 귀납적 방법을 통한 범주화 작업으로 메인 테마들이 도출될 것이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경험적 연구를 통한 사실적 이해에 기반하여 발달장애인들의 신체활동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들로 꾸준한 신체활동 활성화를 기대한다.

키워드 : 성인발달장애인, 신체활동, 주간활동센터, 포토보이스

* kkim78@knu.ac.kr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dashed lines, typical of primary-ruled notebook paper.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present.



자유주제 발표

태권도 도장에서 태권도 학원으로의 변화

최영훈, 장익영* _한국체육대학교

이 연구의 목적은 태권도 도장이 학원화된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는데 있다. 현재의 태권도 도장은 과거 태권도 도장의 무도 중심 수련 문화와 달리 다양한 사교육을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 기관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태권도 도장이 학원화 형태로 변화된 원인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 고찰과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헌고찰은 국내 학술자료 및 연구보고서를 통해 태권도 도장의 역사와 변천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심층 면담은 20년 이상의 태권도 수련 경력과 10년 이상의 태권도 도장 운영 경력을 보유한 태권도 관장 9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태권도 도장이 학원화된 원인은 첫째, 교육환경의 변화로 인한 사교육 시장 확대에 나타났으며, 하위 요소로 대학 입시제도 변화와 태권도 학과 개설이 도출되었다. 둘째, 태권도 도장의 운영 문제로 나타났으며 하위 요소로 수련 대상 확장의 한계, 전통 무도 중심 태권도 수련의 한계로 도출되었다. 이 연구는 과거 무도 중심이었던 태권도 도장이 학원화된 원인을 규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변화에 따라 태권도 도장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볼 수 있다.

키워드 : 태권도 도장, 태권도 수련, 학원화, 사교육 시장

* ikyoungchang@knsu.ac.kr

[illegible]



자유주제 발표

태권도 코치 사회화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김혜은, 권순용*_서울대학교

코치는 학생선수 스포츠 참여, 운동수행능력 향상, 선수 개인 발달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학생선수 사회화뿐만 아니라 코치 경력개발 및 처우개선 포함 코치 개인의 전반적 삶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치 사회화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태권도 코치의 내러티브 탐구를 통하여 코치의 사회화 경험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료수집을 위하여 5년 이상의 선수 경험과 2년 이상의 코치 경험이 있는 6명의 현직 코치를 대상으로 심층면담, 비참여관찰을 수행하였다. 자료분석 결과 코치는 변화하는 코칭 환경(경기규칙의 변화, 학생선수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변화 등)에 대응하는 경험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화 주관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면서 적극적으로 타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환경과의 타협은 대회 출전 및 입상을 위한 코칭 전략의 변화, 선수 개인 발달을 위한 새로운 코칭 방식의 적용 등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 코치 사회화, 태권도 코치, 코칭, 코치 경험

* kwonsy@snu.ac.kr

[illegible]



자유주제 발표

상식으로 포장된 ‘비인기종목’ 개념의 사회학적 비판

남상우_충남대학교 조교수, 박채운_충남대학교 학부생, 김대희*_충남대학교 학술연구교수

[목적] 이 연구는 스포츠계에서 상식으로 통용되어 온 ‘비인기종목’이라는 개념의 용례를 분석하기 위한 시도로 이 개념을 사용한 상황적 맥락과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스포츠 종목 중 비인기종목을 구분할 판별 기준을 제안하고자 수행되었다. **[방법]** 분석대상은 체육학회지 내 ‘비인기종목’ 언급된 연구물(25편)과 주요 일간지와 인터넷 신문에서 보도된 기사(33편)였고, 이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의 데이터베이스가 활용되어 수집되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비판적 문헌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체계화하였다. **[결과]** 첫 번째 결과로는 비인기종목을 다룬 학술논문과 언론 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다뤘다. 문헌 고찰 한 결과, 비인기종목은 1) 개념 정의 부재, 2) 비인기종목 기준 소거, 3) 상황적 맥락에 의존하여 남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비인기종목 용어의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합의되지 않은 채로 사용되고 있었고, 단지 각 종목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음을 드러내거나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 결과로는 첫 번째 연구 결과 분석과정 중 비인기종목 맥락을 범주화한 내용을 중심으로, 스포츠 종목의 인기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으로서 1) 직접 참여 정도, 2) 간접 참여 정도, 3) 참여 환경 구축 정도가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직접 참여 정도는 생활스포츠 및 엘리트스포츠 참여자 수를 의미하고, 간접참여 정도는 매체(SNS, 스포츠 채널, 관람수 등) 소비량을 근거로 하며, 참여 환경은 시설 현황 및 종목 운영 체계 구축 정도(조직, 협회, 스포츠클럽 등)이다. 위 세 가지 이론적 기준을 근거로 인기 정도를 비교 가능하게 하고, 비인기종목 지원에 대한 가설적 준거를 제안하였다.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스포츠계에서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는 비인기종목이란 개념이 명확한 기준 없이 특정 상황에 맞게, 특히 자신들에게 부족한 자원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활용되는 일종의 ‘정치적 조어’임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활용됨을 알면서도 스포츠계 구성원 사이엔 이 단어의 명확한

* daehee@cnu.ac.kr



키워드 : 스포츠, 상식, 개념, 비인기종목, 정치적 조어, 인기, 직접참여, 간접참여, 참여환경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primary-ruled paper. It features ten sets of horizontal lines across the page. Each set consists of three lines: a solid top line, a dashed middle line, and a solid bottom line.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from the left margin to the right edge of the page. There is no handwriting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자유주제 발표 Session #2
(교양강의동 302호)

사회 : 이원미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조직이사)



자유주제 발표

스포츠클럽 등록 활성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검도 동호회의 스포츠클럽 등록 경험으로 이해한 제도적 문제와 개선안

남상우_충남대학교 조교수, 김준희_충남대학교 석사과정, 김대희*_충남대학교 학술연구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수혜자의 관점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스포츠클럽 등록 제도의 문제와 그 개선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공동연구자 중 한 명이 임원으로 소속된 대학 검도동호회를 D광역시 Y구 체육회에 직접 등록하면서, 연구자들은 현재 스포츠클럽 등록 제도가 어떤 점이 문제인지를 과정별로 파악하고, 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방안이 필요할지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동연구자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검도동호회의 스포츠클럽 등록을 준비하기 시작하여 같은 해 11월 31일 최종적으로 등록을 마칠 때까지의 모든 경험을 사건 중심으로 기록하여 특정 국면을 구분한 후, 각 국면에 따라 드러난 문제를 기록 및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는 스포츠클럽으로의 등록 과정을 ‘등록스포츠클럽 제도 인식(2022년 04월)’에서부터 ‘스포츠클럽 등록 완료(2022.11.15.)’까지 총 13개 단계로 구분하면서 각 단계별 사건 발생과 그 사건의 특징, 문제점 도출, 그리고 그에 대한 잠재적 해결책을 정리하였다. 그렇게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에서는 현재 스포츠클럽 등록 제도를 둘러싼 핵심적 문제를 크게 세 가지로 범주화한 후 이를 사회학 및 정책학적으로 설명하였다.

첫째, 스포츠클럽 제도 관련 정보가 베일에 싸였기에 등록 주체가 관련 정보를 개별적으로 찾고 그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문제다. 이와 같은 정보의 불명확성 및 부정확성 문제는 「스포츠클럽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스포츠클럽 등록 신청 누리집·Y구 체육회가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으므로 발생하는 문제다. 한마디로 부처 간에 스포츠클럽법에 관한 이해의 폭이 달라, 스포츠클럽 제도의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스포츠클럽 등록 의지를 꺾게 만든다.

둘째, 지방체육회 자체가 스포츠클럽 등록제를 환영하지 않는 ‘반감으로 채워진 행정’ 탓인지, 행정 주체가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거나, 등록하고 그 이후 이어질 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알려주지도 않은 채 등록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가 빈번

* daehee@cnu.ac.kr



하게 발생했다는 문제다. 등록스포츠클럽의 경우, 10인이면 누구나 스포츠클럽을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해당 클럽의 정관을 제출해야 하는데, 작성하는 요령도 없을뿐더러 명시되어 있는 설명서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류준비의 난해함이 스포츠클럽 등록을 지연시킨다.

셋째, 스포츠클럽 등록 혜택이 사실상 없다는 제도적 모순 문제다. 스포츠클럽 등록의 혜택은 체육시설비 감면, 순회지도자 지원, 학교체육시설 사용 시 유지·보수비 지원 등이지만, 지방체육회의 인력 부족과 시설비 감면 체육시설의 제한으로 인해 조례가 제·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조례 제·개정으로도 실질적인 스포츠클럽 등록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제도적 모순은 스포츠클럽을 등록할 이유를 잃게 해 등록을 포기하게 한다.

키워드 : 스포츠클럽 제도, 등록스포츠클럽, 제도적 문제, 등록 과정, 스포츠클럽 활성화



memo



자유주제 발표

VAR 시스템의 명과 암: K-League 심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서동진, 서희진, 김기운* _건국대학교

본 연구는 K-리그 심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VAR 시스템 적용 이후 현장에서 나타나는 긍정·부정적 변화와 문제점을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Q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선행연구, 축구협회 자료, 언론 보도 등 문헌 자료와 K-리그심판 65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QUANL 1.2 PC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K-리그심판들이 VAR에 대한 인식 유형은 ‘공정성과 심리적 안정 추구형’, ‘기술적 한계로 인한 부담 증가형’, ‘통일성 부재에 대한 우려형’ 등 세 가지 형태로 도출되었다. 제1유형(공정성과 심리적 안정 추구형)은 VAR 시스템 도입으로 선수, 지도자, 팬들에게 심판의 공정성과 신뢰도 회복 등을 중요시하는 유형이다. 제2유형(기술적 한계로 인한 부담 증가형)은 VAR 장비의 결함 및 기술적 한계로 인해 경기 중 일어나는 오심 및 평가지표 반영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유형이다. 제3유형(통일성 부재에 대한 우려형)은 VAR 시스템에 대한 질 높은 교육 및 경험 제공을 통해 심판 간 판정의 통일성과 신뢰도를 향상해야 한다는 유형이다. 특히 세 유형 모두 VAR 시스템으로 인한 선수, 지도자, 팬들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도 향상, 오심을 정정할 때의 심리적 부담감 감소한다는 점에 긍정적 인식을 보였으며, VAR 시스템에 대한 심판 간의 견해 차이 및 판정 해석에 대한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공통적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키워드 : VAR 시스템, K-리그, 축구심판, 주관성, Q방법론

* woon3733@kku.ac.kr

[illegible]



자유주제 발표

스포츠 ODA와 공동창출: 이해관계자 인식을 중심으로

송시현, 권순용* _서울대학교

공동창출(Co-creation)이란 이해관계자의 협력이나 참여를 통해 가치가 형성되는 과정이다. 공동창출은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이 동등하게 교환된다는 의미와 교환된 지식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가치가 모두 포함된 개념이다. 본 논문은 '공동창출'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스포츠 ODA에 참여하는 공여국과 수원국의 공동창출은 수치화할 수 있는 가치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식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가치로 존재하고 있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스포츠 ODA 사업에서 공여국과 수원국의 이해관계자가 공동창출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공동창출의 함의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한 사례로 WCC-KOREA의 ODA 프로그램 이해관계자 15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심층 면담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여국과 수원국 이해관계자는 모두 공동창출의 '공동' 자체를 공동창출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가치 '창출'의 의지, 주체, 평가, 기대효과에 있어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스포츠 ODA에서 공동창출의 함의는 '비대칭구조 인정을 전제한 공동을 가치창출로 인식하는 공여국 이해관계자', '공동으로 하는 상황 자체를 가치창출로 인식하는 수원국 이해관계자', '공동이 아닌 창출에서의 합의 필요성'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 스포츠 ODA, 공동창출(Co-creation), 공여국, 수원국

* kwonsy@snu.ac.kr

[illegible]



자유주제 발표

체육교습업 입법과정에서의 문제와 시행과정에서의 의도되지 않은 결과: 리틀야구를 중심으로

권순일_한국체육대학교, 장익영*_한국체육대학교

이 연구는 체육교습업의 입법과정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체육교습업 시행과정에서 리틀야구팀들이 직면한 다양한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탐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체육교습업의 입법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정부기관의 정책자료와 입법에 참여한 전문위원을 심층면담 하였다. 또한, 의도되지 않은 결과의 유형들을 도출하기 위하여 체육교습업 종사 리틀야구단 대표 또는 감독 총 11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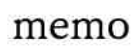
첫째, 체육교습업의 입법과정은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 발의에서는 먼저 이정미의원, 안민석의원, 한선교의원 순서대로 유사 법안이 우후죽순 중복발의 되었고, 상임위원회 심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건너뛰는 조치와 어떠한 질의와 토론 없이 진행함으로 부실한 법안 검토가 나타났다. 본회의 심사·의결에서는 2분 만에 의결되었으며, 찬성 185명에 의원 모두 조항을 자세히 검토하였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즉 체육교습업의 입법과정을 검토한 결과 보여주기식 법안 발의, 부실한 검토 과정, 충분치 않은 심사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둘째, 체육교습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도되지 않은 결과는 크게 영리 행위와 담당자들에 따라 달라지는 해석으로 나타났다. 먼저, 영리 행위는 공공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의도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리틀야구단이 체육교습업에 신고하게 되면 영리단체로 취급되어 공공 체육시설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대표적이다. 또한, 리틀야구단은 지자체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역시 체육교습업에 신고하면 불가한 상황이다. 또 다른 의도되지 않은 결과는 담당자마다 달라지는 해석이다. 체육교습업의 구체적이지 못한 세부 법령으로 인하여 지자체 담당자마다 다른 유권해석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급박히 이루어진 국회에서의 발의부터 충분한 검토, 심도 있는 토론 없는 부실한 심사 등이 영향을

* ikyoungchang@knsu.ac.kr



키워드 : 리틀야구, 체육교습업, 입법과정, 의도되지 않은 결과

[illegible]

2023년 한국스포츠사회학회 정기학술대회
양극화 시대, 스포츠를 읽다

2023년 11월 21일 인쇄
2023년 11월 24일 발행

- 발 행 인 : 서 희 진
- 발 행 처 : 한국스포츠사회학회
- 인 쇄 처 : 레인보우박스

Tel. 02)2032-8800(代) / Fax. 02)871-0935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WINTER YOUTH OLYMPIC GAMES GANGWON 2024

01.19-02.01

GET YOUR TICKETS GANGWON2024.COM

경기티켓 무료예매



GROW
TOGETHER
SHINE
FOREVER

몽초
MOONGCHO

스포츠안전재단

미션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한다.

비전

스포츠안전 표준을 제시하는 전문기관,
믿음직한 스포츠안전 파트너

핵심가치

전문성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스포츠안전의
기준과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 향상에 힘쓴다.

고객만족

스포츠안전재단과
함께하는 고객은
항상 최고의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

혁신추구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의 분야를 끊임없이
개척하고 도전하는 자세를 유지한다.

신뢰와 협력

동료 및 조직 그리고 고객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한다.

인재존중

직원들이 조직 목표 달성과 자기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든다.

인재상

Sportsmanship	Ambition	Friendly	Expertise	Thinking	Yearn
스포츠처럼, 소통과 협력 그리고 긍정의 가치를 아는 프로형 인재	포부가 있으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리더형 인재	친절함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인재	전문성을 갖춘, 구성원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발전형 인재	창의력 있는, 생각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혁신형 인재	열망을 가지고 스포츠안전으로 긍정적 변화를 추구하는 정의형 인재

스포츠안전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재단법인으로
모든 국민들이 스포츠를 더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분류	스포츠안전사고 예방		스포츠안전사고 대응	그 외 사업		
사업 분야	스포츠안전교육	스포츠행사 안전관리 점검	스포츠안전공제	스포츠안전홍보·캠페인	스포츠안전연구	국제스포츠안전교류
	(자격) 스포츠안전관리사(1, 2급)	스포츠행사 안전요원 지원				
	스포츠안전 인증제도 운영					



한국스포츠사회학회
www.ksss.org

이 발표논문집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대회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NRF-2023S1A8A4A01089049)